

#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성장 과정과 한계 : 삼각동맹\*

## - 아스테카 제국의 허구와 실체

이종득\*\*

(덕성여대 스페인어과)

- I. 서론
- II. 삼각동맹의 결성과 역사적 의미
- III.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성장 과정과 연합체 구조
  - III.1. 중심부 구조와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정치적 위상
  - III.2. 주변부 구조
- IV.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한계: 연합체의 구조적 문제
- V. 결론

## I. 서론

멕시코 분지 내에서 멕시코(mexica)는 아스틀란(Aztlán)에서 이주해 온 소수 이방 민족에 불과했다. 게다가, 멕시코-테노초티틀란(Mexico-Tenochtitlán)을 테스코코(Texcoco) 호수의 척박한 섬에 건립(1325년 경)한 이후에도 아스카포살코(Azcapotzalco)에 예속되어 공물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아스카포살

---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09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Jong-Deuk Lee(Duks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leejong@duksung.ac.kr), "El desarrollo y los límites en Mexico-Tenochtitlán: la Triple Alianza - ficción y verdad del Imperio Azteca".

코와의 정략결혼과 연맹관계를 통해 아콜우아칸(Acolhuacan) 지역뿐만 아니라 치남파스(Chinampas) 일부 지역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나갔다.<sup>1)</sup> 테소소묵(Tezozomoc) 사망 이후 코요아칸(Coyoacán)의 막스틀라(Maxtla)가 치치메카틀-테쿠틀리(chichimécatl tecuhtli, 치치메카의 도시국가들을 대표하는 왕. 필자 주)를 탈취하고 멕시코의 치말포포카(Chimalpopoca) 왕을 죽이면서 멕시코-테노츠틀란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네사우알코요틀(Nezahualcōyotl)과 연합하여 아스카포살코의 공격을 막아내며 승리(1428)했다. 이 사건은 치치메카(chichimeca) 시대를 마감하고 멕시코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아스카포살코 연합 도시국가와의 전쟁 승리 이후, 멕시코-테노츠틀란은 멕시코 분지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정복을 통해 메소아메리카 상당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적인’ 도시국가로 거듭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한 요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3개 도시국가(Mexico-Tenochtitlan, Texcoco, Tlacopan) 간에 맺은 삼각동맹이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멕시코-테노츠틀란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4대 왕, 이스코아틀(Itzcoatl)은 테스코코와의 연합 관계를 바탕으로 틀라코판을 끌어들이며 멕시코 분지를 3개 지역으로 재편하는 삼각동맹을 맺었다. 이를 통해, 멕시코-테노츠틀란은 삼각동맹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멕시코 분지 내의 패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삼각동맹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력한 연합군을 바탕으로 대외 정복에 나서면서 단 기간에 거대한 연합체를 건설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삼각동맹을 통해 멕시코-테노츠틀란이 멕시코 분지 내의 패권을 확보하고 대외 정복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다. 그리고 멕시코-테노츠틀란 중심의 연합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한계가

---

1) 아콜우아칸과 치남파스 일부 도시국가의 정복은 대부분 아스카포살코와 공조하여 이루어졌다. 멕시코가 이 지역에서 공물을 받았었지만 패권은 아스카포살코에 있었다.

있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아스테카 제국’이라 불리는 연합체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분리하고, 삼각동맹 내에서의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정치적 위상과 주변부 도시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규명한다. 본 연구는 정복 시기와 식민 초기에 작성된 고문서와 연대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II. 삼각동맹의 결성과 역사적 의미

아스카포살코를 중심으로 한 테파네카(tepaneca) 도시국가들을 정복한 이후에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은 멕시코 분지의 정치 판도를 재편했다. 두란(1995, 174)의 기록을 보면, 이스코아틀은 찰코(Chalco), 쿠아우나우악(Cuauhnahuac), 우에호싱코(Huexotzinco), 아스카포살코, 코아틀리찬(Coatlíchan)의 왕들에게서 전쟁 지휘권을 박탈하고, 3개 도시국가(멕시코-테노초티틀란, 테스코코, 트라스코판)의 왕만이 지휘권을 갖도록 했다. 전쟁 승리에 큰 도움을 주었던 트라스칼라(Tlaxcala)와 우에호싱코를 비롯한 연합체 도시국가들을 모두 배제하고 3개 도시국가 중심으로 전쟁 지휘권을 배분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사우알코요틀의 기존 영지에 속해 있었던 2개 도시국가(Huexotla, Coatlíchan)와 중심 도시인 테스코코를 회복한 이후에 트라스칼라, 우에호싱코, 찰코가 자신들의 도시로 되돌아갔다는 내용이 『치치메카 역사』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5). 이들 도시 국가는 아스카포살코 연합체의 공격으로부터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을 방어하여 테파네카의 확장을 억제하고, 네사우알코요틀이 아콜후아(acolhua)의 기존 영지를 회복하는 데까지만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영지(당시 테스코코와 인근 도시는 아스카포살코와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 공물을 바치는 속지였다. 필자 주)를 축소시켜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러한 의도의 최종 목적은 명백하게 테소소목이 패권을 확보하기 이전의 전통적인 정치 구도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삼각동맹의 초기 구조는 『치치메카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스코아틀은 전쟁 승리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네사우알코요틀에게 아콜우아 지역을 반환해주며 치치메카를 테쿠틀리로 인정했다. 그리고 테파네카 지역의 통치를 틀라코판의 토토키우아쥘(Totoquihuatzin)에게 위임하며 테파네카를 테쿠틀리(Tepanecatli tecuhtli, 테파네카의 도시국가들을 대표하는 왕: 필자 주)로 임명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2-83). 이 기록을 통해 이스코아틀이 절묘한 구도로 멕시코 분지를 재편하며 패권을 확보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네사우알코요틀의 경우는 치치메카를 테쿠틀리로 회복했지만 조부인 테초틀랄라신(Techotlalazin) 왕 시대에 비하면 영지가 아콜우아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아스카포살코를 중심으로 한, 테파네카의 주요 도시국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스코아틀은 네사우알코요틀이 치치메카 전체 도시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과거의 영광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는 알바 익스틀릴소치틀(1985b, 86-87)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코아틀이 네사우알코요틀을 치치메카를 테쿠틀리로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며 아콜우아 왕으로 머무르기를 원하자, 이에 분노한 네사우알코요틀은 이스코아틀과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 따라서 이스코아틀은 네사우알코요틀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그 결과는, 네사우알코요틀을 치치메카를 테쿠틀리로 인정하여 전통적 직위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기존의 치치메카 영지를 테파네카 도시국가와 아콜우아 도시국가로 분리하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정치 판세를 이해한다면 틀라코판의 왕이 테파네카 도시국가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테쿠틀리로 급부상하게 된 의문점이 해소된다. 또한, 갓 정복해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파네카 도시들을 같은 종족의 틀라코판을 통해 수월하게 평정하려는 속셈도 내재해 있다.

그러나 여러 테파네카 도시국가 중에서 틀라코판이 선택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존재한다. 한 사료에 따르면, 코요아칸의 막스틀라가 아스카포살코에서 치치메카를 테쿠틀리로 등극하자 직위를 탈취당한 정통 계승자가 틀라코판으로 피신했다.<sup>2)</sup> 따라서 틀라코판이 테파네카 도시국가들을

2) “Relación de la genealogía y linaje,” *Relación de Texcoco y de la Nueva*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토토키우아신이 테소소목의 손자이지만 타야신의 아들이라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반면에, 『치치메카 역사』에 따르면, 틀라코판의 왕이 비밀리에 네사우알코요틀과 멕시코를 도와 주었고(Alva Ixtlilxóchitl 1985b, 80), 네사우알코요틀이 틀라코판을 삼각동맹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스코아틀에게 제안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2). 다양한 기록과 해석이 있지만, 토토키우아신이 테소소목의 손자였기 때문에 정통성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았고, 테파네카 도시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

삼각동맹이 체결된 시기와 관련해서도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네사우알코요틀이 치치메카틀 테쿠틀리로 등극한 시점을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쿠아우티틀란 연대기』(Anales de Cuauhtitlán)는 연도를 언급하지 않고, 전쟁 중이었으며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49). 『테스코코 역사』에 따르면, 아스카포살코를 정복한 이후, 소치밀코(Xochimilco, 1429년 정복)와 여러 도시국가(Quitláhuac, Mízquic, Tezcoco, Xicotépec, Pahuatla, 1430년 정복)를 정복하고, 1431년에 네사우알코요틀이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서 테스코코의 틀라토아니와 치치메카틀 테쿠틀리로 등극했다(Alva Ixtlilxochitl 1985b, 444). 따라서 치남파스 지역의 도시와 테스코코를 정복한 이후인 1431년에 삼각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코아틀과 네사우알코요틀이 치남파스 지역의 공물을 양국 간에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치치메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7).

삼각동맹의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이스코아틀이 쿨우아 테쿠틀리(culhua tecuhtli)로 등극했다는 점이다. 당시, 쿨우아는 멕시코 분지에서 툴라(Tula)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한 종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같은 종족이 아니었던

---

*España, Pomar-Zurita, 1941, p. 252.* 고문서와 연대기 중 일부는 저자뿐만 아니라 편집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와 관련된 학회 규정이 없어서 저자와 편집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각주로 표기하고, 편집인만을 아는 경우는 저자 이름 대신에 편집인의 이름을 쓰고, “(ed.)”를 첨부했다.

멕시코의 왕이 쿨우아 테쿠틀리란 새로운 직위를 사용한 것은 전략적인 의도였다.<sup>3)</sup>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역사를 틀라에 이어 붙이며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쿨우아칸(Culhuacán)을 통해 멕시코 분지 내의 정치적 정통성까지 확보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삼각동맹은 멕시코 분지를 종족에 의거하여 크게 3개 지역으로 재편한 것이다. 그 역학 관계를 분석해 보면 이스코아틀의 정치적 역량이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네사우알코요틀을 정통 치치메카틀 테쿠틀리로 회복해주고, 테파네카의 자존심을 틀라코판을 통해 세워주면서 멕시코 분지의 주요 종족인 아콜우아와 테파네카를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전략적이며 계획적인 재편이었다. 사실, 초기에는 테파네카와 아콜우아의 도시국가들을 직접 통치하기에는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역량이 부족했다. 따라서 틀라코판과 테스코코가 각각 테파네카와 아콜우아의 도시국가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반발을 상대적으로 쉽게 무마할 수 있었고,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대한 직접적인 반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사우알코요틀은 상당 부분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이스코아틀의 재편 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도시 기반인 테스코코가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영지였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했고, 단기간에 아콜우아칸을 회복하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를 도와주었던 틀라스칼라와 우에호싱코 등의 연합군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삼각동맹이 탄생했다.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연합체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각동맹은 멕시코가 창조한 독창적인 정치 체계는 아니다. 이러한 전통은 『쿨우아칸 건립 역사』에 따르면 기원후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쿨우아칸, 틀라, 오톰바(Otumba) 사이에 삼각동맹을 맺은 기록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Cuauhtlehuanitzin 1991, 7). 또한, 멕시코가 이주 과정을 거쳐 멕시코 분지의

3) 첫 번째 왕, 아카마피츠틸리(Acamapichtli)의 모계가 쿨우아인 것을 근거로 초기에 멕시코는 쿨우아와 같은 종족임을 주장했다.

차풀테펙(Chapultepec)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아스카포살코를 중심으로 코아틀리찬과 코요아칸이 맺은 삼각동맹이 존재했다(Alva Ixtlilxóchitl 1985a, 409). 당시 삼각동맹국의 위치를 살펴보면, 테스코코 호수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삼각동맹도 멕시코 분지의 지형적 특성에 맞게 결성된 전통적인 정치 틀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삼각동맹은 전통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 III.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성장 과정과 연합체 구조

#### III.1. 중심부 구조와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정치적 위상

‘아스테카 제국’이라 불리는 연합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합체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중심부는 삼각동맹국과 각 영지(멕시코 분지와 주변)에 속해 있는 예속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주변부는 완전 예속된 정복지와, 공물을 바치거나 우의 확인과 같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삼각동맹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고 대외 정책에 협조하는 정복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연합체 중심부의 핵을 이루는 삼각동맹국의 구조를 살펴보면, 삼각동맹 초기에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영지에는 9명의 왕이 있었다. 반면에,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의 영지에는 각각 14명과 7명의 왕이 있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8). 『치치메카 역사』의 기록은, 왕이 있었던 도시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연합체 중심부에 총 30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테스코코 역사』에서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 예속된 9개 도시국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멕시코 분지 남쪽의 쿨우아칸 지역에 4개 도시국가가 있었고, 치남파스 지역에는 3개 도시국가가 있었다. 테파네카 지역인 서부

4) Culhuacan, Itztapalapan, Mexicatzinco, Huitzilopochco, Xochimilco, Cuitlahuac, Mizquic, Tenayocan, Ecatepec(Alva Ixtlilxóchitl 1985a, 446). 멕시코-테노초티틀란과 예속 도시국가는 필자가 작성한 <그림 1>에서 도시국가 이름 앞에 ■로 표시하여 다른 삼각동맹국의 도시국가와 구분했다.

지역에도 2개의 도시국가(Tenayocan, Ecatepec)가 발견된다.



<그림 1> 삼각동맹국과 각국의 예속 도시

반면에, 「치치메카 역사」는 네사우알코요틀이 치치메카를 테쿠틀리를 회복했을 당시 테스코코에 예속되어 있었던 14개 도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sup>5)</sup> 「쿠아우티틀란 연대기」는 「치치메카 역사」의 기록에 비해 도시국가의 수가 1개(Pantlan) 더 많은 15개를 언급하고 있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64). 테스코코에 예속된 도시국가의 대부분이 멕시코 분지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3개 도시(Tulantzinco, Cuauhchinanco, Xicotépec)의 경우는 멕시코 분지를 상당히 벗어난 북동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테스코코의 전통 영지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틀라코판의 영지는 『오수나 고문서』(*Códice Osuna*)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왕이 있었던 도시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45개 도시만을 기록하고 있다.<sup>6)</sup> 왕이 있었던 도시국가는 「쿠아우티틀란 연대기」 기록에서 6개(Tlacuba, Coyohuacan, Cuauhtitlan, Tullan, Apazco, Ytzcucuitlapil)를 찾을 수 있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63). 「쿠아우티틀란 연대기」가 정복 초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삼각동맹 이후

- 5) Huexotla, Coatlinchan, Chimalhuacan, Tepetlaóztoc, Acolman, Tepechpan, Tecoyoacan, Chicuhnaughtla, Chiautla, Teotihuacan, Otompan, Tulantzinco, Cuauhchinanco, Xicotépec(Alva Ixtlilxóchitl 1985b, 89). <그림 1>에서 테스코코와 예속 도시국가는 이름 앞에 ●로 표시했다.
- 6) 오수나 고문서에 기록된 테파네카 45개 도시: Tlacuba(1), Azcapotzalco(2), Tzaucyocan(3), Quahuacan(4), Huitzitzilapan(5), Ocelotepec(6), Tlachco(7), Chichicquauhtla(8), Tepehuexoyocan(9), Ocoyacac(10), Coyohuacan(11), Atlacuihuayan(12), Atlauhpolco(13), Xalatlauhco(14), Capolloac(15), Cohuatepec(16), Cuauhtitlan(17), Toltitlan(18), Tepotzotlan(19), Huehuestocan(20), Otlazpan(21), Tepesic(22), Tzompanco(23), Citlaltepec(24), Tullan(25), Xiuhpacoyan(26), Atlitlalacyan(27), Michmaloyan(28), Nestlalpan(29), Teçontepec(30), Tlemaco(31), Mizquiyahualla(32), Tlaahuililpan(33), Chilquauhtla(34), Ytzmiquilpan(35), Apazco(36), Atotoniltonco(37), Axocopan(38), Tecpatepec(39), Ytzcucuitlapil[co](40), [...]tepaneco(41), Tezcatepec(42), Hueypochtlan(43), Tequisquiac(44), Xilotzinco(45)(Chávez Orozco(ed.) 1947, 496-498). 왕이 없는 소도시나 마을은 각 이름 뒤에 필자가 표기한 번호로 <그림 1>에서의 위치를 나타냈다. 반면에, 왕이 있는 도시국가는 이름 앞에 ▲와 번호를 함께 표기했다.

왕이 있었던 도시국가가 1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삼각동맹국과 각 예속 도시국가들의 위치를 분석해 보면, 멕시코 분지 내에서 멕시코-테노츠틸틀란은 남부 지역, 테스코코는 동부 지역, 틀라코판은 서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틀라코판의 경우는 아스카포살코의 기존 영지를 관리했기 때문에 영지가 멕시코 분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지를 벗어난 북쪽 주변 지역까지 이르렀다. 테스코코 또한, 멕시코 분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지를 벗어난 북동 지역까지 영지를 갖고 있었다. 삼각동맹 초기의 상황을 기록한 사료로만 본다면, 멕시코-테노츠틸틀란의 영지가 다른 2개 도시국가의 영지에 비해 적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멕시코-테노츠틸틀란에 예속된 2개 도시국가(테나유카)와 예카테펙)가 멕시코 분지 서부 지역에 있었고,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에 예속된 상당수의 도시에서 공물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삼각동맹은 삼국 간에는 공물을 바치지 않으며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고,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속 도시와 함께 도와준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8).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삼각동맹의 질적 변화가 발견된다. 각종 사료들을 분석해 보면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이 멕시코-테노츠틸틀란에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예속되었던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네사우알코요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식 형태의 ‘거짓 전쟁’을 치룬 경우이다. 두란(1995, 179-181)에 따르면, 이 의식을 통해 테스코코가 멕시코-테노츠틸틀란에 예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테스코코의 땅을 멕시코 왕실과 틀라카엘렐(Tlacaélel) 이외에도 전공이 있는 귀족과 군 지휘관 등에게 분배를 했다. 두란의 기록만을 본다면 테스코코가 멕시코-테노츠틸틀란에 완전히 예속된 도시국가로 여겨진다. 하지만 테스코코가 멕시코-테노츠틸틀란에 공물을 바쳤었다는 기록은 어느 사료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멕시코-테노츠틸틀

---

7) 『테스코코 역사』의 기록에 따라 <그림 1>에서 테나요칸(Tenayocan)으로 표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테나유카(Tenayuca)로 불린다. 연대기나 고문서마다 지역과 도시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우아틀어 발음을 스페인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란의 위세에 놀려 정치적 간섭을 받기도 했지만 정복 시기까지도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했다. 따라서 멕시코-테노초티틀란과 공조하여 테스코코가 회복한 영지 내 25개 도시가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 공물을 바쳤던 사실을 두란이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거짓 전쟁’ 사건은 삼각동맹국 간의 초기 위상이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 왕부터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삼각동맹의 중심이 멕시코-테노초티틀란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사실이다.

삼각동맹국 간의 힘겨루기는 스페인 정복 이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치남파스 지역이다.<sup>8)</sup> 치치메카틀 테쿠틀리 직위 문제로 네사우알코요틀과 이스코아틀이 대치하고 화해를 한 이후부터 테스코코는 치남파스 지역에서 공물을 받기 시작했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7). 그러나 네사우알코요틀이 사망하고 네사우알필리(Nezahualpilli)가 직위를 계승했을 때에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치남파스 도시국가들에 대한 공물 징수권을 테스코코로부터 박탈해 버렸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87).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정치적 위상이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 초기에 작성된 『멘도시노 고문서』(Códice Mendocino)와 『공물 명부』(Matrícula de tributos)를 분석해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정치적 영향력이 자신의 영지뿐만 아니라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의 영지까지 널리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멘도시노 고문서』와 『공물 명부』를 보면,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 예속된 지역에서 공물을 바쳤던 중심 도시로 틀라텔롤코(Tlatelolco, lám 1)와 페틀라칼코(Petlascalco, lám 2)가 기록되어있다. 틀라텔롤코는 예속된 도시나 마을이 전무하지만 페틀라칼코의 경우는 22개의 예속된 도시와 마을을 갖고 있었다.<sup>9)</sup> 테스코코 영지에서도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 공물을 바친 도시가

8) 치남파스 지역은 소치밀코와 찰코를 중심으로 멕시코 분지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는 호수의 일부를 메우고 농경지로 활용하는 치남파스 농법이 발전했다.  
9) 1. Xalalpan, 2. Yopico, 3. Tepetlachco, 4. Tecoloapan, 5. Tepechpan, 6. Tequemecan, 7. Huicolopuchco, 8. Colhuaconco, 9. Cocotlan, 10. Tepepulan,

『멘도시노 고문서』에 나타난다. 이를 분석해 보면, 25개 도시가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또한, 멕시코 분지 동북 방향의 아토토닐코(Atotonilco)에 속한 5개 도시도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쳤었다.<sup>11)</sup> 흥미로운 것은 왕이 있었던 4개 도시국가(Tepetlaóztoc, Acolman, Tepechpan, Tecoyoacan)가 포함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스카포살코 연합체와 패권을 다룰 당시에 앞의 도시들을 테스코코가 독자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테노츠티틀란과 공조하여 정복한 도시임을 보여준다.<sup>12)</sup> 이처럼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쳤던 도시가 많았다는 것은 테스코코에 예속된 상당수의 도시들이 멕시코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은 틀라코판에 예속된 아토토닐코,<sup>13)</sup>쿠아우티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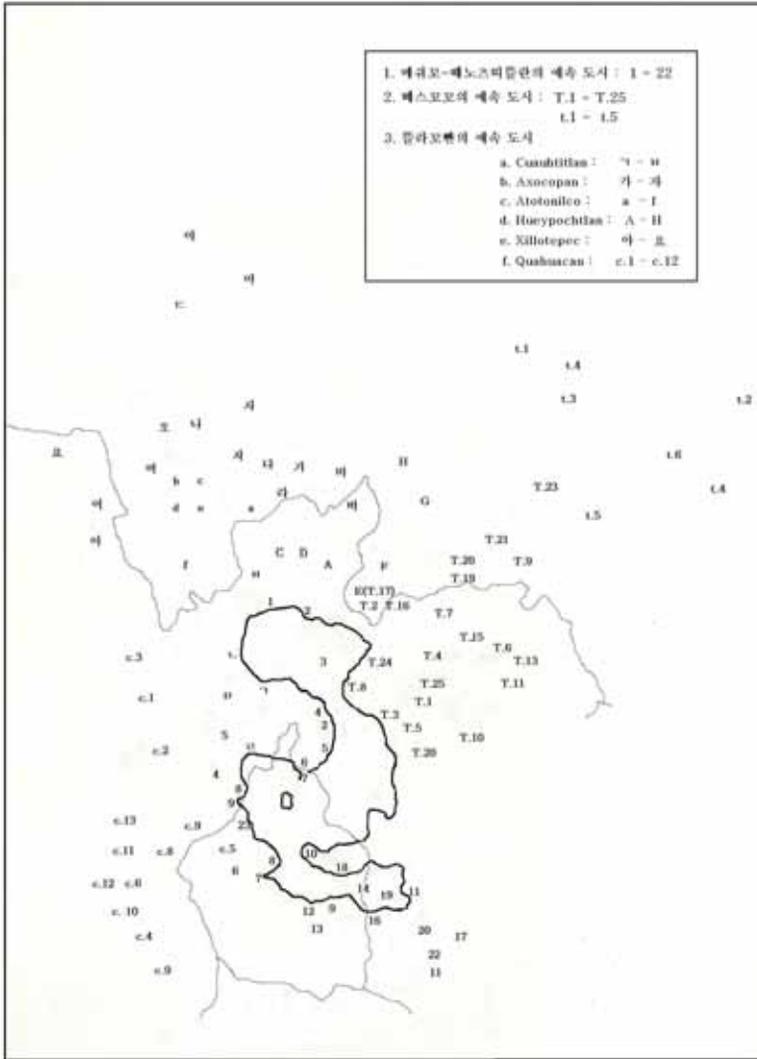
11. Olac, 12. Acapan, 13. Cuitlahuac, 14. Tezacacoac, 15. Mixquic, 16. Aochpango, 17. Tzapotitlan, 18. Xico, 19. Toyac, 20. Tecalco, 21. Tlaexiuchco, 22. Nextitlan(Mohar Betancourt(ed.) 1990a, lám 2; 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2). 『멘도시노 고문서』와 『공물 명부』의 쪽수는 일반 책의 쪽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메소아메리카 학회에서 사용하는 lámina의 약자 lám을 사용했다. 각 지명 앞에 있는 번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10) (T.1)Huicilan, (T.2)Totolcinco, (T.3)Tlachyahualco, (T.4)Tepechpa, (T.5)Aztaquemeca, (T.6)Teacalco, (T.7)Tonanytla, (T.8)Cempoala, (T.9)Tepetlaóztoc, (T.10)Ahuatepec, (T.11)Tiçatepec, (T.12)Contlan, (T.13)Yxquemecan, (T.14)Matixco, (T.15)Temazcalapan, (T.16)Tiçayucan, (T.17)Tepetlapan, (T.18)Calyahualco, (T.19)Teçoyucan, (T.20)Tlaquilpan, (T.21)Quauhquemecan, (T.22)Epaçuyucan, (T.23)Ameyalco, (T.24)Quauhyocan, (T.25)Ecatepec(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3).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11) (t.1)Acaxochitla, (t.2)Quachquecaloyan, (t.3)Hueyapan, (t.4)Itzihuinquilocan, (t.5)Tulancingo(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10).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12) 아콜만의 경우는 알바 익스틀릴소치틀의 『테스코코 역사』의 기록과 배치된다. 『테스코코 역사』에 따르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군사적 도움 없이 네사우알코요틀이 여러 도시국가 사람(tlaxcala, huexozinca, cholulteca, zacateca, tototepeca, chalca)들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하여 아콜만을 회복했기 때문이다(Alva Ixtlilxóchitl 1985a, 441).

13) 아토토닐코에 예속된 도시: a. Guapalcalco, b. Quecalmacan, c. Acocolco, d.



<그림 2>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 공물을 바쳤던 도시

Tehuehuc, e. Otlazpan, f. Xalac(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8).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Cuauhtitlán),<sup>14)</sup> 아쇼코판(Axocopan),<sup>15)</sup> 틀라 지역의 아토토닐코 우에이포츠틀란(Hueyepochtlan),<sup>16)</sup> 쉴로테펙(Xillotepec),<sup>17)</sup> 쿠아우아칸(Quahuacan)에서도 공물을 받았다.<sup>18)</sup> 각 도시마다 예속된 마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가 공물을 받았던 도시와 마을은 틀라코판의 모든 영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그림 2> 참조). 이는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앞에 기록된 도시 정복에 참여했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 정복 시기에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은 멕시코 분지 내에서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에 비해 월등한 정치적 우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삼각동맹국 영지의 일부 도시로부터 공물을 받았던 것은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치치메카 역사』에 따르면, 테스코코 또한 멕시코-테노츠티틀란과 틀라코판 영지 내에 있는 일부 도시로부터 공물을 받았었기 때문이다.<sup>19)</sup> 공물을 받은 도시를 분석해 보면, 아스카포살코 연맹체

14) 쿠아우티틀란에 예속된 도시: ㄱ. Tehuiloyocan, ㄴ. Alhuxoyocan, ㄷ. Xapalan, ㄹ. Tepoxoco, ㅁ. Cuezcomahuacan, ㅂ. Xolocinco(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6).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15) 아쇼코판에 예속된 도시: 가. Atenco, 나. Tepepango, 다. Xochichucan, 라. Temohuayan, 마. Tezcatepec, 바. Myzquiyahuala, 사. Yzmiquilpan, 아. Tlaahuililpan, 자. Tecpatepec(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7).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16) 우에이포츠틀란에 예속된 도시: A. Xalac, B. Tequixquiac, C. Tetlapanalogan, D. Xicalhuacan, E. Xomeyocan, F. Acayocan, G. Tezcatepetango, H. Actopan(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9).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17) 시요테펙에 예속된 도시: 아. Tlachco, 야. Tzanayalquilpa, 어. Michmaloyan, 여. Tepetitlan, 오. Acaxochitla, 요. Tecocauhtla(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11).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시요테펙은 다른 기록에서는 쉴로테펙(Xilotepec)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18) 쿠아우아칸에 예속된 도시: c.1. Tecpa, c.2. Chapilmoloyan, c.3. Tlalatlauco, c.4. Acaxochic, c.5. Ameyalco, c.6. Ocotepec, c.7. Huizquilocan, c.8. Coatepec, c.9. Quauhpanoayan, c.10. Tlallachco, c.11. Chichiquautla, c.12. Huitzicilapa(Mohar Betancourt(ed.) 1990b, lám 12). 각 지명 앞에 있는 기호는 필자가 표기한 것으로 <그림 2>에서의 위치이다.

19) el barrio de Xoloco(Mexico Tenochtitlan), Tlacopan, Azcapotzalco,

와 전쟁을 했을 당시 멕시코와 연합하여 정복한 테파네카 지역의 9개 도시와 치남파스 지역의 2개 도시였다.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의 내부(el barrio de Xoloco)에서 테스코코에 공물을 바친 경우는 솔로코 칼폴리의 테스코코 사람들이 멕시코-테노치티틀란뿐만 아니라 테스코코에도 공물을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틀라코판의 주요 도시들이 멕시코-테노치티틀란 이외에 테스코코에게도 공물을 바쳤었다는 것은 삼각동맹국 중에서 틀라코판의 정치적 위상이 가장 약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틀라코판도 일부 지역에서 공물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 『틀라코판 역사』(*Memorial de Tlacopan*)를 보면 농지가 찰코와 틀랄우익(Tlalhuic, 현재의 모렐로스 주: 필자 주) 지역에 있었고, 예측된 도시 15개가 발견된다.<sup>20)</sup> 하지만 찰코와 틀랄우익은 삼각동맹국이 공조하여 정복한 지역이었고 나머지는 분지 서부 산악 지역이었다. 따라서 틀라코판이 공물을 받은 지역은 멕시코 분지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테파네카의 큰 도시국가였던 아스카포살코와 코요아칸 등은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테스코코가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틀라코판의 영지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었다. 이는 두란(1995, 130, 151)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각동맹국 간의 관계를 영지와 공물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Tenayocan, Tepotzotlan, Quauhtitlan, Toltitlan, Tlécatepec, Huexachtitlan, Coyohuacan, Xochimilco, Cuexomatitlan(Alva Ixtlilxóchitl 1985b, 87). <그림 3>에서 테스코코에 공물을 바친 도시는 도시 이름 앞에 ●로 표시하여 틀라코판에 공물을 바친 도시(▲)와 구분했다.

- 20) 찰코 지역 영지: Tetzcolco, Mizquic, Yaotzinco, Quauhatitlan, Amoloncan, Xocoyoltepec, Itztlacoçauhcan. 틀랄우익 지역 영지: Yztteyocan, Couintepec, Xoxouhtlan, Xoxocotla, Miyauatlan, Calpilco, Tecpançolco, Amacoztitlan, Molotlan, Aneneuilco. 예측된 도시: Tepeyacac, Auazuatepec, Xolotepec, Xochiyocan, Coquitzinco, Maxtlecan, Tolocan, Toxincó, Tochcalco, Ixtlauacan, Cacapechco, Quauhtlaapan, Tequiquiyacac, Nopallan, Tecalco, ‘Memorial de los pueblos de Tlacopan’, “Memorial de los pueblos”, *Zimmermann*, 1970, pp. 5-8; facsímil en láminas 6-8. <그림 3>에서 틀라코판에 공물을 바쳤던 도시는 도시 이름 앞에 ▲로 표시하여 테스코코에 공물을 바쳤던 도시(●)와 구분했다.



널리 알려진 몇 개의 예를 살펴보면, 네사우알코요들은 차풀테펙과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을 잇는 수로를 건립해 주었고, 염수와 담수를 분리하기 위해 테페야카(Tepeyacac)과 이사팔라판(Itzapalapan)을 잇는 댐을 축조해 주었다. 이러한 토목 공사는 테스코코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을 비롯하여 각 지의 예속된 도시국가들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신전 건축에 참여했던 것이 발견된다. 게다가,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각각 책임지고 충당해야 했다(Durán 1995, 336) 이러한 관계는 삼각동맹 초기부터 스페인 정복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대항수가 낮을 때도 네사우알필리가 도시를 복구해주었기 때문이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67). 이처럼 독립적인 도시국가인 것처럼 보이는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을 위해 각종 노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관계와 관련하여 삼각동맹국 사이의 역할 분담을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은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을 지휘했고, 테스코코는 법률 정비와 토목 공사를 담당했으며, 틀라코판은 농산물 생산을 담당했었다는 것이다(Obregón Rodríguez 1995, 282). 이러한 주장은 현재 메소아메리카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증을 하기는 쉽지 않다.

모톨리니아(1971, 337) 기록을 보면, 삼각동맹국은 전쟁을 함께 하며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는 의견 교환과 비준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군사 행동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은 항상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왕이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의 왕을 불러 전쟁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뿐이다. 삼각동맹국의 왕들이 멕시코 왕의 계획에 반대하는 경우는 어떤 기록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멕시코 분지를 평정한 이후 외부 지역을 정복할 때는 삼각동맹국의 왕뿐만 아니라 분지 내 예속 도시국가의 왕들도 소집하여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발견된다(Durán 1995, 490). 테스코코와 틀라코판 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것이 감지된다. 또한, 삼각동맹국의 왕은 다른 동맹국 왕의 선출을 비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Clavijero 1987, 125),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의 왕은 선출된 멕시코의 왕을

인준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반대로 목테수마 쇼코요신의 경우는 카카마신이 테스코코의 왕으로 선출되도록 적극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Clavijero 1987, 144-146). 물론, 삼각동맹의 협약에 따라 삼각동맹국의 왕들은 80일마다 3개 도시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만나 국정을 의논했고<sup>21)</sup> 각종 행사(왕위 계승, 결혼, 신전 건립 등)에 함께 참석했다. 대부분의 경우 삼국 간의 공조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는, 15세기 중반에 멕시코 분지와 주변이 병충해와 한파, 그리고 기쁨에 따른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재앙기였다.<sup>22)</sup>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와 네사우알코요틀, 그리고 토토키우아신은 예측된 도시국가들에게 6년간 공물 납부를 면제시켜주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11-113).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삼각동맹국 간의 정치적 우위와 주도권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으로 집중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테스코코가 독립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전통 신을 모시는 신전을 완공한 이후, 네사우알코요틀이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를 찾아가 허락을 요청했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54). 게다가, 테스코코에 우이실로포츠틀리 대신전이 1467년에 건립되었다. 테스코코가 고유의 신(Tloque Nahuaque) 이외에 멕시코의 우이실로포츠틀리도 숭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테스코코에 대한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종교적 간섭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틀라코판의 경우는 앞의 경우와 관련된 사료가 거의 발굴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지만, 테스코코에 비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21) Archivo General de Indias, Sevilla, *Justicia*, 1029, núm. 10.

22) 1445-1446년에 메뚜기 떼가 극성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했다. 1450년에는 큰 눈이 내려 농작물 피해가 심했고, 추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후 3년 동안에도 추위와 기근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게다가, 1454년에는 일식(당시 원주민은 일식을 흉조로 인식했다. 필자 주)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토토나판(Totonapan) 지역에 노예로 팔아 식량을 마련하기도 했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51; Alva Ixtlilxóchitl 1985b, 111). 이렇게 팔렸던 아이들은 이후에 부모가 몸값을 치른 경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멕시코 분지 내의 삼각동맹국 구조는 현재까지 발굴된 고문서와 연대기의 기록에 나타난 영지와 공물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예속된 도시국가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단지, 테스코코와 예속 도시국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치치메카 역사』가 유일할 뿐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네사우알코요틀은 아콜우아 영지를 회복한 이후 14개 도시국가의 왕 중에서 1개(Tepetlaóztoc)를 제외한 13개 도시의 왕을 교체했다. 그 중에서 치아우틀라(Chiautla) 왕으로는 아들을 임명하고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왕으로는 조카를 임명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89-90). 새로운 치치메카틀 테쿠틀리의 등장은 예속된 도시국가 대부분의 왕이 교체되는 엄청난 정치 변동이었다. 그러나 2개 도시국가의 왕을 제외하고는 전통 왕족에서 우호적인 인물을 선택하여 왕으로 임명했다는 특징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네사우알코요틀이 8개 도시를 직접 통치했었다는 사실이다.<sup>23)</sup> 『치치메카 역사』에 따르면, 이 도시에는 공물징수원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일을 보기도 했지만 공물을 걷어 테스코코의 왕에게 바쳐야 했다. 공물 징수원이 바친 공물은 왕실 식량과 경비뿐만 아니라, 왕궁 소속의 관리(각종 위원과 판사 등)와 직원들의 식량과 경비로 충당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각 도시가 바친 공물이 일정 양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왕궁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Texcoco(70일), Atenco(70일), Tepepolco(70일), Axapochco(45일), Cuauhtlatzinco(70일), Tetitlan(?), Tecpilpan(?), Ahuatepec?(Alva Ixtlilxóchitl 1985b, 89-90).<sup>24)</sup>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틀라코판도 테스코코와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23) Texcoco(?), Tecpilpan(8), Tepepolco(13), Axapochco(13), Ahuatepec(8), Cuauhtlatzinco(27), Atenco(11), Tetitlan?(Alva Ixtlilxóchitl 1985b, 89-90).

괄호 안에 있는 수는 도시에 예속된 마을의 수를 의미하고, 물음표(?)는 알 수 없는 경우이다.

24) 물음표(?)는 알 수 없는 경우이다.

### III.2. 주변부 구조

#### III.2.1. 정복 과정의 특징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이 중심이 된 삼각동맹국의 연합군이 정복한 지역은 메소아메리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정복과 관련된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 멕시코-테노치티틀란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내용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중 『태양의 전설』은 아카마피츠틀리 왕부터 아샤야카틀(Axayacatl) 왕까지의 정복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sup>25)</sup> 반면에 『틀라텔물코 연대기』는 아샤야카틀부터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까지의 정복지를 기록하고 있다.<sup>26)</sup> 이스코아틀 왕 시기의 정복지를 분석해 보면 멕시코 분지 내의 테파네

- 
- 25) 아카마피츠틀리 왕의 정복지: Xochimilco, Cuitláhuac, Cuahnáhuac, Mizquic. 우이셀리우이틀 왕의 정복지: Xaltocan, Acolman, Otompan, Chalco, Tetzco, Tollantzinco, Cuauhtitlan, Toltitlan. 치말포포카 왕의 정복지: Chalco, Tequixquiac. 이스코아틀 왕의 정복지: Azcapotzalco, Tlacopan, Atlacuihuayan, Coyohuacan, Mixcóhuac, Cuauhimalpan, Cuahuacan, Teocalhuiyacan, Tecpan, Huitzillapan, Cuahnáhuac, Tetzco, Cuautitlan, Xochimilco, Cuitláhuac, Mizquic, Tlatilolco, Itztépec, Xiuhtépec, Tzaqualpan, Chalco, Yohuallan, Tepequacuילו, Cuecallan.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니 왕의 정복지: Coaxtlahuacan, Chalco, Chiconquiyauhco, Tepoztlan, Yauhtépec, Atlatlahcan, Totollapan, Huaxtépec, Tecpatépec, Yohualtépec, Xiuhtépec, Quiyauhteopan, Tlacoçauhtitlan, Tlachco, Cuahnáhuac, Tepequacuילו, Cohuatlan, Xillotépec, Itzcuincuitlapilco, Tlapacoyan, Chapolicxitlan, Tlatlahquitépec, Yacapichtlan, Cuauhtocho, Cuetlaxtlan. 아샤야카틀 왕의 정복지: Tlatilolco, Matlatzinco, Xiquipilco, Tzinacantépec, Tlacotépec, Tenantzinco, Xochiyacan, Teotenanco, Caliimayan, Metépec, Ocoyácac, Capolloac, Atlapolco, Qua...(Feliciano Velázquez(ed.) 1992b, 128-129).
- 26) 아샤야카틀 왕의 정복지: Xiquipilco, Toluacan, Tzinacantépec, Callimanyan, Teotenanco, Tenantzinco, Xochiyacan, Xalatlahco, Cuappanohuayan, Ocoyácac, Tepeyácac, Tecalco, Cuezcomatliyácac, Matlatlan, Oztotícpac, Tlaollan, Poxcauhtlan, Tototlan, Cuetlaxtlan, Cuezalóztoc, Mixtlan, Tetzapotitlan, Coyohuacan, Tochpan, Cuextecatépec, Occetépetl. 티속(Tizoc) 왕의 정복지: Tecuauhcózcac, Occetépec, Toxicó, Ecatépec, Cillan, Matlatzinco, Mazahuacan, Ecatlapechco, Tamapachco, Occetépetl, Tlappan, Yancuitlan, Yexochitla, Atezcahuacan. 아우이소틀(Ahuitzotl) 왕의 정복지:

카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테파네카의 주요 도시 이외에 아스카포살코의 후방에 위치한 서부 지역까지도 정복한 것으로 보아 테파네카의 근거지 진압이 이스코아틀 왕 시기에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곡창 지대인 치남파스 지역을 정복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찰코의 경우는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가 재정복 하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코아틀이 1436년에 사망할 때까지 찰코를 제외한 멕시코 분지 내의 도시를 거의 대부분 평정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멕시코 분지를 벗어난 대외 정복도 감행했다. 모렐로스(Morelos)주의 쿠아우나우악(현재의 Cuernavaca)과 틀라츠코(현재의 Taxco)를 지나 게레로(Guerrero)주의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 동부의 일부 지역(Tzaqualpan, Cuetzamal, Yohuallan, Tepequacuicco)까지 진출했다.<sup>27)</sup> 첫 번째 대외 정복이 현재의 쿠에르나바카 지역이었던 것은

---

Tlappan, Tziuhcóhuac, Molanco, Tzapotlan, Xaltépec, Tototépec, Xochtla, Amaxtlan, Yauhtépec, Cozacauhtenanco, Xolochiuhcan, Cozohuipilecan, Coyócac, Apancalecan, Xiuhixtlahuacan, Acatépec, Acapulco, Huexolotlan, Tecpatépec, Nexpan, Iztactlaloacan, Teocuitlatlan, Zozollan, Xicochimalco, Cuauhxacatitlan, Coyolapan, Nacazcuauhtla, Cuezalcuitlapilco, Izhuatlan, Cahuallan, Huehuetlan, Huitztlan, Xolotlan, Mazatlan, Huipillan, Tecuantépec, Ayotochcuitlatlan, Cuauhtlan, Mizquitlan, Tlacotépec, Cuauhpiloyan. 목테수마 쇼코요신(Moctezuma Xocoyotzin) 왕의 정복지: Tlatlahuquitépec, Zozollan, Atlauhco, Tecuictepec, Nocheztlan, Huilotépec, Tlanitztlán, Zollan, Icpatépec, Tlacotépec, Chichihualtatacallan, Texotlan, Piaztlan, Molanco, Huitztlan, Tzihuaactlan, Tlachinollan, Amatlan, Pipiyoltépec, Toztépec, Mictlan, Huexolotla, Tliltépec, Xoconochco, Tecozauhtla, Tecpatlan, Tecpantlayácac, Caltépec, Pantépec, Teoatlipantzinco, Tlacaxolotlan, Atlachinollan, Mazatlan, Cihuatlan, Tlachiyauhco, Malinaltépec, Quimichtépec, Centzontépec, Quetzaltépec, Cuezcomaixtlahuacan, Comaltépec, Xalapan, Xaltianquizco, Yolloxonecuillan, Izcentépec, Itzcuintépec, Iztitlan(Tena(ed.) 2004, 43-45). 각종 기록을 종합하여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왕 별 정복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고문서와 연대기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찾아내고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깁슨(Gibson)이 그린 지도를 사용하고, 논문 전개 상 필요한 경우 일부 지역 명을 첨가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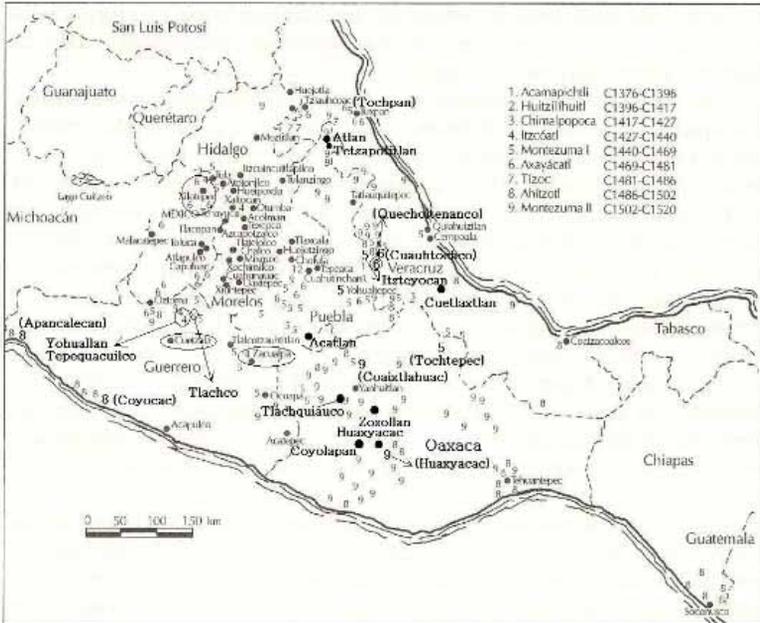
경제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기후가 온화하여 먼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코아틀은 우아스테펙(Huastepec) 지역을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고 태평양 연안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시에라 마드레까지 진출했다.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니 왕의 정복지를 분석해보면, 찰코를 다시 한 번 더 정복함으로써 멕시코 분지 남쪽 끝에 있는 치남파스 지역을 완전히 평정했다. 또한, 분지 북쪽 끝에 있었던 텍파테펙을 정복함으로써 잔존해 있었던 테파네카 도시도 완전히 평정했다. 쿠아우나우악을 재정복하고 현재 모렐로스 주를 집중적으로 정복한 이후에는 오아하카(Oaxaca) 주변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틀라스칼라 지역 하단에 위치한 요우알테펙(Yohualtepec) 지역을 지나 현재 베라크루스(Veracruz)주의 변방 지역까지 진출했다. 또한, 북서 지역으로는 오스토마(Oztoma), 북쪽으로는 툴라(Tula)를 거쳐 시아우코악(Tziahcoac)과 투스판(Tuxpan)까지 정복했다. 매우 넓은 지역을 정복한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니는 대외 정복의 기초를 닦아 연합체의 틀을 만든 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넓은 지역은 아니었다.

아샤야카틀 왕의 정복에서 특이한 점은 틀라텔롤코를 정복한 것이다 (Quiñones Keber(ed.) 1995, 36). 같은 멕시코였던 틀라텔롤코를 정복함으로써 칼폴리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아샤야카틀은 더 나아가 멕시코 분지 내 서북 끝에 있는 카포요악(Capulloac, 김슨은 Capuluac으로 표기: 필자 주)을 정복하고, 타라스코(Tarasco)와 경계하고 있는 북서 지역의 도시(Xiquipilco, Tzinacantépec, Metépec, Calimayan, Teotenanco, 필자가 <그림 4>에서 원을 그려 놓은 Xilotepec 주변 도시: 필자 주)를 정복했다. 이로써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은 틀라코판 영지 북서 지역의 말라카테펙(Malacatepec)과 쉴로테펙(Xilotepec)을 경계로 타라스코(tarasco)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외에 아샤야카틀이 정복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 목테수마

27) 김슨의 지도(<그림 4>)에서 Zacualpa는 『태양의 전설』에 기록된 Tzaqualpan과 동일 지역이다. 『태양의 전설』에 기록된 Cuecallan은 Cuetzala와 동일 지역으로 보이지만 김슨은 이를 이스코아틀의 정복지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일루이카미나가 정복한 지역을 재정복하거나 그 주변을 정복한 것에 불과하다. 뒤를 이은 티속의 경우는 북쪽의 메스티틀란(Meztitalan) 지역을 재정복하는 것에 그쳤다.



출처: Charles Gibson(1971), "Structure of the Aztec Empire,"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Archaeology of Northern Mesoamerica*, p. 381.

〈그림 4〉 멕시코 왕 별 정복지

그러나 아우이소들은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의 업적에 버금가는 새로운 정복지를 개척했다.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오아하카와 베라크루스 주의 일부 도시를 공격하여 새로운 정복지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멀리 멕시코 만의 코아사코알코스(Coatzacoalcos)와 태평양 연안의 테우안테펙(Tehuantepec)까지 정복하여 테우안테펙 지협을 잇는 거대한 연합체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 아판칼레칸(Apancalecan)과 코요카(Coyocac)을 잇는 태평양 연안 지역까지 정복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과테말라의 소코누스코

(Soconusco)까지 정복을 했다는 사실이다. 뒤를 이은 목테수마 쇼코요신은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타틀라우키테펙(Tatlaquitepec) 지역을 정복하였고, 현재 베라크루스 주에서의 패권을 확고하게 다졌다. 또한, 아우이소틀이 정복하지 못한 오아하카 주의 남부 도시를 정복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아우이소틀 왕의 후반부에 와서야 영토적으로 ‘제국적인 면모’를 갖추었고, 그 명성은 20년 정도의 짧은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대외 정복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유일한 사료는 두란의 기록이다. 이 기록(Durán 1995, 207)에 따르면, 찰코를 정복한 이후 최초의 대외 정복지는 트라스칼라 남동쪽에 위치한 테페아카(Tepeaca)였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정복할 때에 삼각동맹국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국가들(소치밀코, 쿨우아칸, 찰코, 쿠이틀라우악, 코요아칸, 아스카포살코)도 전쟁에 동원된 것이 처음 발견된다. 이 기록은 대외 정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멕시코 분지 내 정복이 삼각동맹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외 정복에는 직접 통치를 받았던 멕시코 분지의 도시국가들이 삼각동맹국의 지휘 아래 참여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연합군의 규모에서 나타났다. 한 예로,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케살테펙(Quetzaltepec)과 토토테펙(Tototepec)을 공격할 때에 병력의 수가 40만에 이르렀다(Durán 1995, 490). 연합군 규모의 확대는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고, 대외 정복을 수월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원거리 정복이 빈번해지면서 정복되거나 자발적으로 연합체에 들어온 도시국가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확대되었다. 삼각동맹국의 연합군이 지나치는 도시들이 군량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합군이 도시를 약탈하고 폐허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발견된다(Durán 1995, 221). 또한, 원거리 정복 시에 정복할 지역의 주변 도시국가에서 군인을 모집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아우이소틀 왕 시기에 멀리 떨어진 도시국가(Tequantepec, Xolotla, Izuatlan, Miauatlan, Amaxtla)를 정복할 때에 주변 국가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과 병력을 제공해 주었다(Durán 1995, 416).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코이스카(Coixca)를 정복할 때에도 주변의 수많은 도시국가(Huaxtepec,

Yauhtepec, Tepoztlán, Yacapichtla, Tololapan, Tlacozauhtitlan, Chilapan, Coixco, Oztomantla, Quetzalla, Ichcateopan, Teoxahualco, Pocteppec, Tlachco, Ylachmallac)들이 전쟁에 참여했다(Clavijero 1987, 108). 삼각동맹의 결속이 강화되고 연합체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생긴 부수적인 효과였다. 정복 예정지의 주변 도시들이 연합군에 군수품 이외에 병력을 제공하는 경우는 아우이소틀 왕 때부터 자주 발견된다. 이 시기를 경계로 삼각동맹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중앙고원지대를 넘어 먼 지역까지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외 정복 시의 전쟁 방식은 멕시코 분지 치남파스 지역의 경우와 동일했다. 먼저 치남파스 지역의 예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정복은 아쿨우아와 테파네카 도시들과의 전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기존 전쟁은 잃어버린 영지 회복과 전쟁 대상국을 진압하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치남파스 도시국가와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기 이전에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의례적인 요구가 발견된다. 소치밀코의 경우는 신전 건축에 사용될 석재와 소나무를 요구했다(Durán 1995, 156). 멕시코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는 연합체의 일원으로 인정했지만 이에 불응할 때는 전쟁을 일으켰다. 일종의 속국 확인 방식이다. 찰코의 경우도 동일하게 의례적인 요구를 했다. 우이실로포츠틀리 신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석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185). 충성도가 의심적인 도시국가의 경우는 이를 시험해보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분지 남쪽 끝의 조그만 섬이며, 틀라우이카(tlahuica)의 중심 도시인 쿠이틀라우악(Cuitlauac)이다. 우이실로포츠틀리 축제에 쿠이틀라우악 귀족들의 딸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돕도록 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Durán 1995, 169). 전쟁을 하는 것은 많은 인명 피해와 경비가 소요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치남파스 도시 정복부터는 전쟁을 통한 직접 정복과 외교 활동을 통한 속국 확인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용되고 있다.<sup>28)</sup>

28) 알바 익스틀릴소치틀의 『치치메카 역사』는 외교 활동을 통한 속국 확인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이 외교

멕시코 만 지역의 켐포알라(Cempoala)와 쿠에틀라스틀란(Cuetlaxtlan)에게도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는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의례적인 요구를 먼저 했다.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조개 등을 공물로 바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응하자 전쟁을 결정하고,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을 비롯하여 예속된 각 도시국가에 전령을 보내 군 소집령을 내렸다(Durán 1995, 230). 그러나 두란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의 대외 정복은 상행위와 관련되어 있었다. 멕시코-테노치티틀란 연합체의 상인들이 상행위 중 해당 도시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대외 정복이 자주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미스테카(Mixteca) 지역에 있는 도시, 코아이스틀라우악(Coaixtlahuac)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코아이스틀라우악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장이 있었던 도시로 멕시코, 테스코코, 찰코, 소치밀코, 코요아칸, 타쿠바, 아스카포살코 외에도 모든 지역의 상인들이 이용했었다(Durán 1995, 238). 이러한 기록을 통해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연합체 주요국 상인들의 상행위 보장은 해당 지역 도시의 충성도와 연합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였음을 알 수 있다.

### III.2.2.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주변부와의 관계

멕시코-테노치티틀란 왕들의 정복지를 「멘도시노 고문서」와 「공물 명부」에 등장하는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우이스틀 왕이 정복한 테우안테펙과 코아사코알코스 지역, 그리고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정복한 오아하카 주의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sup>29)</sup> 이러한 지역은 일시적으로 정복을 했지

---

사절을 보내 3각 동맹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고 예속될 것을 권유했다. 20일 내에 이를 수락하면 연합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거부할 경우에는 테스코코가 두 번째 외교 사절을 보내 다시 예속을 권유하고 20일 간의 시간을 주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왕을 포함해서 귀족들은 용서를 받았고 삼각동맹국에 공물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틀라코판을 외교 사절을 보내 예속을 다시 권유했다. 20일 내에 항복하면 왕만 처벌을 받았으며, 두 번째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보다 더 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다. 3번째 권유가 거부되면 전쟁을 일으켰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03-104).

29) 「멘도시노 고문서」와 「공물 명부」의 중심 도시에 예속된 도시나 마을의 수가

만 예측 도시로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멘도시노 고문서」를 「쿠아우티틀란 연대기」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지역적으로 거의 일치하지만<sup>30)</sup> 내용이 더 구체적이며 방대하다. 「멘도시노 고문서」를 바탕으로 지도(<그림 5>)를 그리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영토는 북쪽으로 메스티틀란, 북서쪽으로는 타라스코와 국경을 마주했고, 남쪽으로는 테우안테펙 지협 이전까지 내려왔다. 멕시코 분지 주변 동쪽에 있는 틀라스칼라 지역(현재 푸에블라 주)과 태평양 연안의 요피징코(Yopitzinco)를 제외한 전 지역이었다. 소코누스코의 경우는 테우안테펙 지협을 상당히 벗어나, 현재 과테말라의 태평양 연안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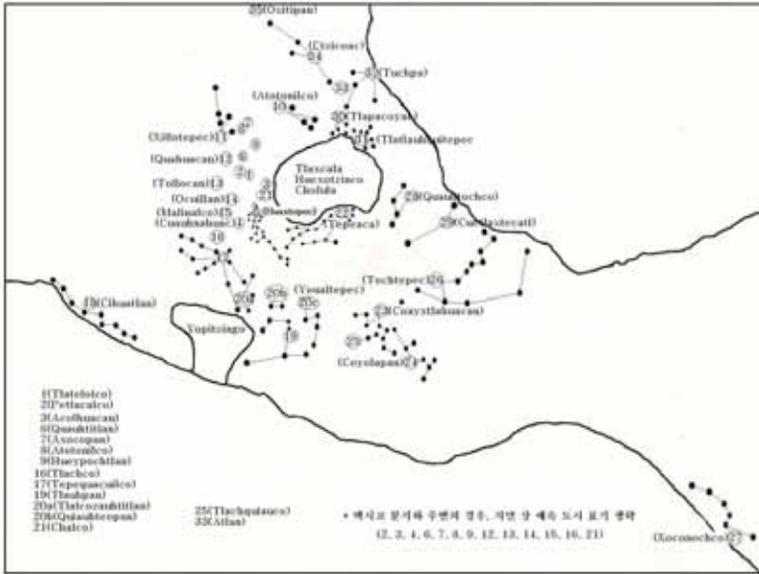
연합체 내의 구조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사료는 「공물 명부」와 「멘도시

---

지나치게 짧은 논문에 모두 인용하지 못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했으면 한다: Luz María Mohar Betancourt(ed.)(1990), “Código Mendocino,” en *La escritura en el México antiguo* 2, láms 1-35; Luz María Mohar Betancourt(ed.)(1990), “Matrícula de tributos,” en *La escritura en el México antiguo* 2, láms 1-34. 「멘도시노 고문서」는 멕시코에서 안토니오 데 멘도사(Antonio de Mendoza)가 1535-1550년 사이에 부왕으로 근무하면서 카를로스 5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1541-1542)된 것이다. 「공물 명부」의 경우는 작성된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복 이후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2개의 사료를 비교하면, 공물을 바쳤던 중심 도시의 수에서 차이가 나고, 공물의 양과 공물을 바치는 횟수 등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 30)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친 도시: Atecpan, Ixicayan, Tlapollitlan, Tozpantlan, Yeyytzcuintlan, Atlixouhcan, Itzmatla, Çemáçac, Ometlan, Tecolotlan, Maçaapan, Cuaxipetztenantlan, Tepetlapan, Coaapan, Çihuateotitlan, Teteltitlan, Cuauhtzapotitlan, Chinamecan, Çitlalpollan, Pantzontlan, Tlacoxochitla, Itzmatla, Teotitlan, Chiucnáhuac, Ollan, Tiçapan, Tlatolloyan, Amatzcallapan, Ichcapetlacotla, Cuauhtlaacapan, Chiconcoac, Xochiquentlan, Iyactecuicitlan, Maçatlan, Tlaçohuallan, Tochmilco, Cozcaquauhlan, Tochpan, Ahuiztilco, Moyotlan, Cuaxipetztecomatlan, Tetlpozteccan, Micquetlan, Apachiquauhla, Tecomaapan, Tetlmopaccan, Miyahuapan, Totollocan, Miztontlan, Patoltetitlan, Ayotépec, Cuauhcallapan, Ocellotépec, Aztecallan, Pollotlan, Coyochimalco, Xochimilco, Cuauhtzapotla, Tollapan, Quetzalcoatenco, Cohuatlachco, Cuauhcalco, Huiloc, Omacatlan, Tozpotonco, Pohuaçanco, Papatlan, Tlamacaztlan, Xochititlan, Mollanco, Xollan, Teuctonallan(Feliciano Velázquez(ed.) 1992a, 65).

노 고문서』이다. 두 고문서에 따르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친 중심 도시는 각각 32개와 37개이며, 각 중심 도시는 예측된 도시와 마을을 갖고 있었다.<sup>31)</sup>



〈그림 5〉 멘도시노 고문서 공물 지도

31) 「공물 명부」에 따르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친 도시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수는 도시에 예측된 도시나 마을의 수다): Tlatelolco(0), Petlalcalco(22), Acolhuacan(25), Quauhnhuac(15), Huaxtepec(25), Quauhuitlan(6), Hueyepochtlan(8), Atotonilco(5), Xillotepec(6), Quahuacan(12), Tollocan(11), Ocuilan(5), Malinalco(2), Tlachco(9), Tepequacuico(13), Cihuatlan(11), Tlauhpan(12), Tlacozahtitlan(7), Quiauhteopan(5), Yohualtepec(5), Chalco(5), Tepeacac(21), Coaxtlahuacan(10), Coyolapan(10), Xoconochco(7), Quauhtocho(6), Cuetlaxtecatl(5), Tlapacoyan(6), Tlatlahquitepec(10), Tuchpan(6), Atlán(1), Ctzicoac(4)(Mohar Betancourt(ed.) 1990a, láms 1-34). 「멘도시노 고문서」는 「공물 명부」보다 5개 도시국가[Axocopan(9), Atotonilco(6), Tlachquiauco(2), Tochtepec(21), Oxitipan(0)]가 더 많은 37개 중심 도시를 기록하고 있다(Mohar Betancourt(ed.) 1990b, láms 1-35).

『공물 명부』보다 좀 더 자세한 『멘도시노 고문서』를 기준으로 보면, 연합체 주변부는 30개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중심 도시국가는 여러 개의 도시와 마을로 구성된 하층부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삼각동맹국이 멕시코 분지와 주변에 각각의 예속된 도시를 갖고 있었던 구조와 동일하다. 한 예로, 테페아카의 경우에는 21개의 예속 도시가 있었다. 테페아카는 연대기 기록이 보통 마을이나 도시로 기술하고 있는 알테페틀(altepetl, 물-언덕: 필자 주)로 도시국가에 해당한다.<sup>32)</sup> 알테페틀은 왕궁과 신전이 밀집한 중심지와 농사를 지어 공물을 바치는 주변부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알테페틀은 보통 틀라토아니(tlatoani, ‘말하는 자’, ‘명령하는 자’란 의미로 보통 왕으로 통칭한다: 필자 주)가 통치하며, 통치 지역을 틀라토카요틀(tlatocayotl)이라고 한다. 연대기 기록들은 틀라토카요틀을 영지(señorío) 혹은, 왕국(reino)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알테페틀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 개념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규모가 작아 소도시 국가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알테페틀은 또한, 여러 개의 알테페틀과 연합하여 더 큰 규모의 정치 단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를 대표하는 왕을 우에이 틀라토아니(huey tlatoani)라고 불러 틀라토아니와 구분했다. 우에이 틀라토아니가 있었던 도시국가는 삼각동맹국인 멕시코-테노츠티틀란, 테스코코, 틀라코판 뿐이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다양하다.<sup>33)</sup> 하지만 연합체의 일원으로 인정된

32) 알테페틀은 보통 4-6개 정도의 칼폴리로 구성되어 있었다(Van Zantwijk 1990, 202).

33) 삼각동맹국과 연합체 주변부 도시국가 사이의 관계는 바트러가 제시한 모델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1. 독립과 전쟁(예, 틀라스칼라), 2. 독립과 동맹(예, 삼각동맹국), 3. 반독립(예, Acatlan이 대표적인 경우로 지역의 전통적인 왕이 통치하며,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공물을 바쳤다. 그러나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파견한 총독이나 공물 징수원은 없었다), 4. 반종속(예, 상당수의 도시국가가 이에 속한다. 지역의 전통적인 왕이 통치하지만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파견한 공물 징수원이 있었다), 5. 완전 종속(예속된 경우로, 지역의 전통 토착 세력이 통치권을 상실하고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파견한 총독과 공물 징수원이 지배했다. 이러한 지역에는 멕시코-테노츠티틀란 왕에게 할당된 땅이 있기도 했다)(Bartra 1975, 125-154).

이후에는 전통 토착 세력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인정했고, 삼각동맹국에서 파견한 공물 징수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예로, 테페아카의 경우 정복 이후에 공물 징수원만을 파견했다. 공물 징수원의 주 업무는 80일마다 공물을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 보내는 역할이었다(Durán 1995, 213).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정복된 도시국가는 80일마다 공물을 바쳐야 했다. 하지만 「멘도시노 고문서」와 「공물 명부」를 보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바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sup>34)</sup>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 보인다. 지역과 도시의 규모, 그리고 삼각동맹국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공물 징수원을 선정하는 것도 지역마다 편차가 발견된다. 소리타(1941, 151)에 따르면,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테스코코 왕실 출신의 귀족들이 공물 징수원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발견된다. 코우아이스틀라우아칸을 정복한 이후<sup>35)</sup> 아토날(Atonal) 왕이 죽자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는 아토

34) 한 예로, 오아하카 지역의 코우아이스틀라우아칸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 바친 공물의 명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괄호는 「공물 명부」명단이고, 두 번째 괄호는 「멘도시노 고문서」명단이다. 1. mantas colchadas desta labor ricas: (dos dedos centzontli 400, 매 80일), (dos dedos 400 cargas, 매 6개월). 2. mantas desta labor: (centzontli 400, 매 80일), (dos dedos 400 cargas, 매 6개월). 3. mantas desta labor: (cuatro dedos centzontli 400, 매 80일), (dos dedos 400 cargas, 매 6개월). 4. maxtlatl: (centzontli 400, 매 80일), (400 cargas, 매 6개월). 5. naguas y guipiles: (cent 400, 매 80일), (400 cargas, 매 6개월). 6. pieza de armas: (uno, 연 1회), (una pluma desta divisa, 연 1회). 7. rodela II: (una, 연 1회), (una pluma desta divisa, 연 1회). 8. piezas de armas: (una, 연 1회), (una pluma desta divisa, 연 1회). 9. rodela II: (una, 연 1회), (una pluma desta divisa, 연 1회). 10. sartas cuentas chalchiuitl: (centecpan 20, 시기 없음), (2, 연 1회). 11. plumas largas verdes quetzale: (centetl uno, 시기 없음), (800 manojos, 연 1회). 12. grana que llaman cochinitilla: (ontecpan xiquipilli 40, 시기 없음), (40 talegas, 연 1회). 13. oro en polvo: (matlactetl 2, 연 1회), (20 xicaras, 연 1회). 14. tlalpiloni plumas ricas insignia: (ontzontli 800, 시기 없음), (una, 연 1회)(Mohar Betancourt(ed.) 1990a, lám 23). 「멘도시노 고문서」와 「공물 명부」에 나타난 공물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된다. 멕시코 분지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농업 생산물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에, 먼 지역일수록 희귀 산물이나 멕시코 분지와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는 산물이 나타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거나 운반에 편리한 물품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날의 부인을 공물 징수원으로 임명했다. 이러한 예외는 코우아이스트라우아 칸의 왕이 톨테카와 톨티틀란(Toltitlan)의 후손이어서 예우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52).

이외에, 미스테카(Mixteca) 지역의 아카틀란의 경우와 같이 반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 왕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고 전통 토착 세력은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삼각동맹국이 파견한 총독이나 공물 징수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료를 분석해 보면, 바트러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아카틀란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 공물을 바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멕시코의 왕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물을 바치는 물품의 횡수와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Acuña(ed.) 1985b, 36). 따라서 삼각동맹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고 상호 간의 우의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독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도시국가는 매우 적었다.

『멘도시노 고문서』의 공물 구조를 분석해 보면, 공물을 바치는 도시의 상당 수가 멕시코 분지와 주변에 밀집해 있었고,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서 멀어질수록 밀집도가 완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았던 문명지인 오아하카 지역을 단지 3개 중심 도시(Coaxytlahuacan, Coyolapan, Tlachquiauco)로 나누고, 예측된 도시의 수가 총 22개에 불과해 오아하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멕시코 만의 넓고 비옥한 지역도 단지 2개 중심 도시(Tochtepec, Cuexlaxtecatl)로 나뉘었고, 예측된 도시나 마을의 수가 총 26개에 불과했다. 이를 보면, 멕시코 만 지역에 대한 장악 또한 완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삼각동맹국의 주변부에 대한 장악은 멕시코 분지와 주변 지역(현재의 멕시코 주, 모렐로스 주, 이달고 주 일부)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졌고, 이외의 지역은 지배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35)</sup>

35) 『쿠아우티틀란 연대기』에 기록된 Cohuaytlahuacan을 두란의 경우는 Coaixtlahuac(혹은, Coaixtlahuacan)으로 표기하고 있다.

바트러가 제시한 반종속과 반독립적인 모델의 경우, 공물을 잘 바치거나 삼각동맹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며 우의를 유지한다면 주변부의 수많은 도시들이 완전한 자치를 누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파견된 공물 징수원이 공물과 관련된 일 이외에도 중심부와 주변부의 도시국가들 사이를 정치적으로 이어주는 중개 역할을 했고, 지역의 행정에도 일정 부분 간섭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복지에서 일어난 큰 사건을 해결하거나 판결하기 위해 각종 관리들을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이 직접 파견했었던 기록을 다양한 사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두 도시(Atzallan, Teotlitzacan) 간의 국경 문제가 생기자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는 관리를 파견하여 분쟁을 해결했다.<sup>37)</sup> 아우이소틀도 테티팍(Teticpac)과 테낭고(Tenango) 사이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했다.<sup>38)</sup> 이처럼 각 지역에서 도시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은 관리들을 직접 파견했다. 다시 말해, 각 도시국가에서의 정치·행정적 간섭은 공물 징수원이 담당했다면, 도시국가 간의 조율과 힘의 균형 유지는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이 직접 관여했다.

여러 사료를 분석해 보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이 정복지에 총독이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대부분 공물 징수원만을 파견하여 연합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통설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기록에서 국경 수비도시와 수비대의 존재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카스티요(1964, 167)는 4개의 국경 수비도시(Soconusco, Guazacualco, Muchuacan, Pánuco)

---

36) 많은 연구자들은 『멘도시노 고문서』에 등장하는 중심 도시를 지방 정치 조직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페드로 카라스코(Pedro Carrasco)의 경우는 멕시코 분지 내의 아콜후아칸(Acolhuacan)의 예를 들며, 『멘도시노 고문서』가 공물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지방의 정치 조직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996, 310-311). 페드로 카라스코의 반론은 멕시코 분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지만 주변부에서는 지역의 정치 구조와 관련된 사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검증할 방법은 없다. 학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멘도시노 고문서』가 연합체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7)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 *Tierra*, 33, exp. 7.

38)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 *Tierra*, 18, exp. 3.

의 존재를 언급했고,<sup>39)</sup> 『멘도시노 고문서』의 경우도 많은 도시를 기록하고 있다.<sup>40)</sup> 이를 지리적인 특성으로 분류해 보면, 먼저 연합체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외부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타라스코와 경계한 미초아칸 주의 오스토만(Oztoman)이다. 코아사코알코스에 있었던 아작칸(Atzaccan)과 치아파스(Chiapas) 주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소코누스코 또한 연합체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준다.<sup>41)</sup> 반면에, 연합체 내부에 있었던 국경 수비도시도 있다. 현재 푸에블라 주의 북쪽 파누코(Pánuco) 지역에 있었던 아틀란(Atlan)과 테사포티틀란(Tetzapotitlan)은 북동 지역의 국경뿐만 아니라 틀라스칼라와 우에호싱코와 대치하고 있었던 국경 수비도시였다. 연합체 외부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삼각동맹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군사적 영향력이 취약한 지역에도 수비도시가 설치되었다. 베라크루스 주의 우아투스코(Huatusco)에 있었던 두 도시(Cuauhtochco, Itztesyocan)가 대표적이다. 또한, 오아하카 주에 있었던 두 도시(Zozollan, Huaxyacac)는 정복이 완결되지 않았던 미스테카와 사포테카(Zapoteca) 지역의 통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케찰테낭코(Quecholtenanco)는 매우 전략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다른 국경 수비도시(Cuauhtochco, Itztesyocan)와 더불어 틀라스칼라가 멕시코 만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삼각동맹국과 토츠테펙(Tochtepec) 사이의 교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략적인 도시였기 때문이다.

『멘도시노 고문서』가 언급한 도시 이외에도 국경 수비도시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치치메카 역사』는 우에호싱코와 국경을 맞댄 티사판싱코(Tizapantzinco) (Alva Ixtlilxóchitl 1985b, 205)와, 톨란싱코(Tollantzinco) 근처의 시우인키요칸(Tzihuinquillocan)을 언급하고 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08). 『16세기 지리 역사』에 따르면, 오코페틀라요칸(Ocopetlayocan) 뿐만 아니라 (Acuña(ed.) 1985c, 85), 타라스코와 경계한 쉴로테펙(Xilotepec) 지역

39) 카스티요가 기록한 Guazacualco는 Coatzacoalcos와 동일 지역이며, Muchuacan은 Michoacan과 동일 지역이다.

40) 『멘도시노 고문서』에 기록된 주요 국경 도시는 <그림 4>에 표기되어 있다.

41) 김슨의 경우는 <그림 4>에서 Xoconochco를 Soconusco로 기록했다.

(Acuña(ed.) 1985d, 217-218), 그리고 오아하카 주 해안 지역의 아요쇼치키 아사얀(Ayoxochiquillazallan)에도 국경 수비도시가 있었다(Acuña(ed.) 1985a, 300). 모든 정복지에 수비도시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었다고 알바 익스틀릴소치틀(1985b, 107)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전략적인 지역이나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정복지 상당수에 수비도시나 수비대 형태의 군부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단순하게 공물 징수원만을 파견하여 거대한 연합체를 관리했다는 통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란의 기록을 보면, 국경 수비도시의 건설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오아하카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한 이후에 멕시코와 멕시코 분지에 연속된 도시국가 주민들의 일부를 이주시켜 살도록 하고 공물을 면제시켜주었다(Durán 1995, 292-293). 타라스코와 싸워 2번이나 대패한 이후에도 미초아칸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국경 수비도시(Alauiztla, Oztoman)를 세웠다(Durán 1995, 409-413). 이처럼 전략적인 국경 수비도시에는 삼각동맹국과 분지 내 연속 도시국가 주민의 일부를 이주시켜 직접 통치했다.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에 의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 멸망(1521년)한 이후,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을 중심으로 한 삼각동맹국과 그 정치적 영향권에 있었던 수많은 주변부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아스테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리고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은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왔다. 먼저, ‘아스테카 제국’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 이미 바에로우(1990, 213-219)가 지적했듯이, 아스테카는 특정 종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종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른 모든 연합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또한, 연합체의 구조가 유럽이나 동양에 존재했던 제국의 개념과 매우 다르다. 단일 제국이 아니며, 삼각동맹국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복잡한 연합체였기 때문이다. 물론, 삼각동맹국의 핵은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이었다.

또한, 「멘도시노 고문서」의 공물 구조로 본다면, 전 지역을 멕시코-테노츠티

틀란의 영토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외 정복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의 독자적인 군사 활동이 아니었으며,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이 삼각동맹국의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고문서와 연대기가 멕시코-테노치티틀란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테스코코와 틀라코판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역사 기록에서 삭제되고 있다. 그러나 『쿠아우티틀란 연대기』에서 네사우알코요틀과 네사우알펠리 시기에 테스코코에 공물을 바친 도시를 찾을 수 있다.<sup>42)</sup> 멕시코 분지 외부 지역의 경우 동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국경 수비도시(Tziuhcóhuac, Tlapacoyan, Tlatlahquitépec) 지역까지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의 도시들은 『멘도시노 고문서』에도 등장한다. 그리고 모톨리니아의 기록(1971, 394-396)에서도 북동쪽과 멕시코 만 지역에 위치한 도시 중에 5개 도시(Tochpan, Tziuhcoac, Tlapacoyan, Tlatlahquitepec, Tochtepec)가 삼각동맹국 모두에게 공물을 바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 익스틀릴소치틀의 기록(1985b, 107-108)에서도 4개 도시국가(Tochpan, Tziuhcoac, Tochtepec, Tlatlahquitepec)를 네사우알코요틀이 다른 삼각동맹국과 함께 정복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아사코알코스과 인접한 토츠테펙(Tochtepec)의 경우는 네사우알코요틀이 공물 징수원을 파견했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 틀라코판의 경우는 찰코와 틀랄우익 지역의 농지가 『틀라코판 역사』에 등장한다. 한 기록에서는 연합체의 남부 국경 지대에 위치한 테우안테펙이 틀라코판에 공물을 바쳤었다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sup>43)</sup> 그러나 이 도시는 『멘도시노 고문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42) Coatépéc, Itztapallocan, Papallotla de Tetzoco, Xaltocan, Ahuatépéc, Coyóhuac, Oztotl, Tlatlahuyan, Achichillacachyocan, Tetliztacan, Tliltzapoapan, Tecpan, Mollanco, Tenchol, Xococapan, Tamaçollan, Teoquauhfla, Chamollan, Chicontépéc, Teonochtlan, Tecçizapan, Çocotetlan, Xochimilco, Ahuatlan, Cozcatecotlan, Ayacachtépéc, Tecatlan, Xicallanco, Palçoquitla, Cuachicol, Tonallan, Tamaoc, Coçoquentlan, Tlapalichcatla, Çihuatlan, Tlacotépéc, Tziuhcóhuac, Macuextlan, Tlapacoyan, Tlatlahquitépec(Feliciano Velázquez(ed.) 1992a, 64).

43) Archivo General de Indias, Sevilla, *Justicia*, 1029, núm. 10, f. 6r.

앞에서 언급한 기록들은 테스코코와 트라코판에게 공물을 바쳤던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멕시코 분지 북동 지역뿐만 아니라 멕시코 만과 오아하카 지역의 원거리 정복에 테스코코와 트라코판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멘도시노 고문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테스코코와 트라코판도 공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는 『멘도시노 고문서』가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게만 보내는 공물 체계가 아니라 삼각동맹국 전체에 보내는 공물 체계일 가능성을 열어준다.<sup>44)</sup> 삼각동맹국은 정복 전쟁을 같이 했고 정복지의 공물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삼각동맹국 간의 공물 분배 협정이 체결된 것은 1431년으로 보인다. 치치메카틀 테쿠틀리 직위 문제로 갈등을 하다 화해한 이후, 공조하여 정복했던 치남파스 지역의 공물을 이스코아틀이 네사우알코요틀에게도 처음 분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네사우알코요틀이 치치메카틀 테쿠틀리로 등극했다. 그러나 삼각동맹국 간의 공물 협정의 내용은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쿠아우티틀란 연대기』는 삼국이 동일하게 1/3씩 공물을 나누었다고 한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64). 알바 익스틀릴소치틀의 기록(Alva Ixtlilxóchitl 1985a, 444; 1985b, 83)에 따르면,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테스코코는 각각 공물의 2/5씩, 트라코판은 1/5을 받았었다. 반면에, 토르케마다(1975-1983, 146)는 공물의 1/5을 트라코판에게 배분했고, 나머지 1/3은 테스코코, 2/3(거의 절반에 해당)는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게 분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리타(1941, 74)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3개국 간에 동일하게 분배하기도 했고, 5등분하여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테스코코에 각각 2/5씩 분배하고 나머지 1/5은 트라코판에 분배했다. 모톨리아(1971,

44) 이 문제는 현재 메소아메리카 학계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논쟁 중의 하나이다. 공물과 관련된 연구의 선구자는 바로우(Robert H. Barlow)이다. 그는 『멘도시노 고문서』를 삼각동맹국 전체에 바치는 공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연구자들은 그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며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게만 보내는 공물 체계로 파악했고, 현재까지도 대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물 관련 전문가인 페드로 카라스코(1996, 351)조차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394-396)에 따르면, 공물지를 3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분배를 달리했다. 먼저, 첫째 공물지(78개의 도시로 구성)의 공물은 1/3씩 동일하게 분배했다. 그러나 둘째(33개 도시로 구성)와 셋째 공물지(12개 도시로 구성)의 공물은 멕시코-테노초티틀란과 테스코코에 각각 2/5씩 배분하고, 나머지 1/5은 트라코판에게 분배했다. 그러나 모톨리니아는 3개 공물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록마다 내용의 편차가 있어서 공물 배분의 정확한 비율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양한 사료를 비교하면서 공물 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IV.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한계: 연합체의 구조적 문제

멕시코-테노초티틀란 중심의 연합체는 취약한 구조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종족과 종교는 물론이고 언어와 문화도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집권화 된 정치 체제도 아니었다. 게다가, 칼폴리에 바탕을 둔 사회 구조에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 모래알처럼 이질적인 칼폴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어내는 유일한 구심점은 삼각동맹국의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다시 말해, 삼각동맹이 거대한 연합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삼각동맹국 간의 결속이 약화되거나 와해될 경우는 연합체가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물이었다.

먼저, 연합체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삼각동맹국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중심부의 핵을 이루는 삼각동맹국 간의 관계는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 왕의 초기까지도 불안했다. 찰코와 전쟁을 하는 사이에 다른 도시국가(소치밀코, 쿠이트라우악, 쿨우아칸, 코요아칸, 타쿠바)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나가 정탐꾼을 보냈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Durán 1995, 190). 정복한 도시국가뿐만 아니라 삼각동맹국의 하나인 트라코판(타쿠바로도 불렸다. 필자 주)에도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삼각동맹국 간의 결속이 확고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대외 정복이 활

성화되면서 삼각동맹국 간의 결속은 긴밀해졌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 이전까지는 약간의 정치·종교적인 갈등과 알력은 발견되지만 삼각동맹은 큰 문제없이 유지되었고, 그 패권은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 있었다.

그러나 테스코코의 네사우알필리가 아콜우아 테쿠틀리를 계승하고,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쿨우아 테쿠틀리로 등극한 이후부터는 양국 간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목테수마 쇼코요신의 청을 무시하고 네사우알필리가 자신의 아들(Huexotzincatzin, 목테수마 쇼코요신의 친조카이기도 했다: 필자 주)을 간통죄로 죽였고(Clavijero 1987, 138), 왕비(Chalchiuhnetzin, 멕시코의 적법 딸이었다: 필자 주) 또한 간통죄로 공개 처형하면서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64-165). 목테수마 쇼코요신 또한 트라스칼라와 내통하여 테스코코의 군대를 함정에 빠뜨리고 많은 군인을 죽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 치남파스 지역에서의 공물 징수권을 테스코코로부터 박탈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85-188). 삼각동맹이 와해되지는 않았지만 양 도시국가 간의 관계가 심각한 상태였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1519년 메소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에는 삼각동맹이 와해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테스코코 역사』에 따르면, 네사우알필리가 사망했을 때에 후계자로 이미 지명되었던 11번째 아들(Jorge Yotontzin)을 무시하고, 목테수마 쇼코요신은 자신의 외조카인 카카마신(Cacamatzin)을 왕으로 임명하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게다가, 카카마신의 모친(목테수마 누이: 필자 주)은 네사우알필리의 정실부인이 아닌 첩의 신분이었다(Alva Ixtlilxóchitl 1985a, 450). 이처럼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테스코코 왕위 계승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자 쿨우아 테쿠틀리 자리를 노리던 익스틀릴소치틀은 여러 번에 걸쳐 목테수마에게 도발을 감행했다(Clavijero 1987, 144-146). 또한, 테스코코의 많은 예속 도시들이 익스틀릴소치틀을 지원하는 집단과 카카마신을 후원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골육상쟁을 벌였다. 게다가,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점점 더 과중한 공물을 부과하자 테스코코가 반발하기 시작했다(Alva Ixtlilxóchitl 1985b, 190-192).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

입성했을 때의 정치 상황이었다.

연합체 중심부에서의 문제점은 삼국 간의 결속뿐만 아니라 칼폴리에 바탕을 둔 사회 구조에도 있었다. 한 도시국가는 보통 여러 개의 칼폴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칼폴리마다 정치 세력의 기본 단위를 구성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멕시코의 정치 구조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치말포포카 왕까지도 국정이 칼폴리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스코아틀 왕이 집단지도체제의 수를 4개로 축소하는 정치 개혁에 성공했지만, 이를 대표하는 왕실 위원회(4명으로 구성: 필자 주)가 왕의 선출권을 갖고 있었다. 다양한 칼폴리를 조율하여 결속시키지 못할 경우는 트라텔몰코의 경우처럼 같은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서 떨어져 나가 새로운 도시국가를 세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삼각동맹국과 연속 도시국가에서도 동일했다.

게다가, 삼각동맹국에 연속된 도시국가들은 기회만 있으면 연속 상태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 이러한 예는 멕시코 이전 시기부터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테초틀랄라신 시기에 살토칸(Xaltocan, 오토미 족이 세운 도시국가: 필자 주)의 왕, 솜판(Tzompan)이 반란을 일으켰다(Clavijero 1987, 77-78). 이러한 반란을 통해 연합체의 패권이 다른 종족의 도시국가로 가는 경우도 발견된다. 테초틀랄라신이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익스틀릴소치틀(네사우알코요틀의 부친)이 치치메카틀 테쿠틀리를 승계했지만, 아스카포살코의 테소소목(Tezozómoc)이 자신도 솔로틀(Xólotl)의 후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켜 치치메카틀 테쿠틀리를 탈취했다(Clavijero 1987, 83). 치치메카틀 테쿠틀리가 아콜우아에서 테파네카로 넘어간 것이다. 물론, 멕시코가 아스카포살코와의 전쟁을 통해 멕시코 분지에서의 패권을 확보한 것도 동일한 경우이다. 이처럼 연합체의 패권을 쥔 도시국가의 국력이 약화될 경우는 언제든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아사야카틀(Axayácatl) 왕 시대에도 발생했다. 트라텔몰코의 왕(Moquihuiux)이 멕시코 분지 내 여러 도시(Chalco, Xilotepec, Toltitlan, Tenoyocan, Mexicaltzinco, Huitzilopochco, Xochimilco, Cuitláhuac, Mizquic)의 일부 귀족과 내통하

여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반기를 들은 경우이다(Clavijero 1987, 116-118). 또한,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치치메카틀 테쿠틀리가 교체되는 전환기에 형제 간에도 발생했다. 테소소목이 1422년 사망했을 때에 적법 후계자였던 타야신(Tayatzin)으로부터 막스틀라(당시 코요아칸의 왕으로 테소소목의 7번째 아들: 필자 주)가 치치메카틀 테쿠틀리를 탈취했다(Clavijero 1987, 85).<sup>45)</sup> 이러한 이유로 네사우알코요틀이 사망했을 당시, 혼란을 막고 네사우알필리가 안정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왕의 죽음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Clavijero 1987, 115). 이러한 상황들은 중심부를 구성하는 삼각동맹국 간에도 발생할 수 있었으며, 각 삼각동맹국과 예속된 도시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다. 연합체의 주변부 또한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주변부의 경우는 종족과 종교는 물론이고, 언어와 문화도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았다.

연합체의 통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복지 대부분의 도시국가에 공물 징수원만을 파견하고, 전통 토착 세력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정치 행위였다. 물론,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 국경 수비도시를 설치하고 전략적인 지역과 불안정한 정복지에 수비도시를 세웠지만, 방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삼각동맹국은 물론이고, 멕시코 분지의 각 예속 도시국가의 주민까지도 국경 수비도시에 이주시키기도 했지만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였다. 당시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의 인구는 대략 10-20만 정도였다.<sup>46)</sup> 이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방대한 정복지에 총독과 군대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칼폴리로 구성된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직접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sup>47)</sup> 게다가,

45) 『쿠아우티틀란 연대기』의 경우는 테소소목의 후계자를 케살라야신(Quetzalayatzin)으로 기록하고 있다(Feliciano Velázquez(ed.) 1992a, 37).

46) 당시 사료를 자세히 비교하고 있는 틀라비헤로(1971, 561-570)는 10-2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현대 연구자 중 한 명인 칼넥(1974, 54)은 15-20만을 주장했고, 보라와 쿡(1963, 58-59, 156)은 15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47) 칼폴리의 종족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은 나우아틀라카(Nahuatlaca)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치치메카 개념을 부정하고 멕시코 분지와 주변에 있던 주요 종족(xochimilca, chalca, tepaneca, culhua, tlahuicca,

공물 징수원을 통한 통치도 한계가 있었다. 쿠에틀라스틀라(Cuetlaxtla)에서 공물 징수원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Durán 1995, 250), 이 사건은 당시 멕시코-테노초티틀란에서 파견된 공물 징수원의 정치적인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물 징수원이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을 대표하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정복지를 완전하게 장악할 수는 없었다. 단지, 멀리 떨어진 배후에 삼각동맹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을 뿐이다. 지역 내에 존재했던 수비도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리-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

연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중심축은 삼각동맹국의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복지의 도시에서 군대를 소집하여 거대한 연합군을 구성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연합체 내의 수많은 도시를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반란에 대한 연합군의 진압은 매우 가혹하여 주변부 도시국가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외에도, 정복지가 광대해지면서 연합체 주변부의 귀족들이 일정 기간씩 순번으로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의 왕궁에 기거하도록 하기도 했다(Clavijero 1987, 127). 불모를 통해 도시국가의 반란을 억제하고 충성을 유도하려는 정치 행위였다.

연합체의 주변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른 방식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제와 인신공양이다. 축제는 멕시코-테노초티틀란이 자신의 힘을 외부에 과시하고 연합체 도시국가와의 관계를 확고히 다지는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축제에는 주변 도시국가는 물론이고, 먼 지역의 왕과 귀족, 더 나아가 적대국의 사절까지 초대되는 것이 발견된다. 아우이소틀 왕의 대관식에 트라스칼라, 우에호싱코, 출틀라의 귀족이 참석했다(Durán 1995, 395). 목테수마 쇼코요신의 왕위 대관식에도 트라스칼라와 미초아칸 외교 사절들이 참석했다(Clavijero 1987, 126). 각종 축제를 통해 연합체 도시국가 간의 우의와 결속을 확인하고, 대립하고 있던 지역의 도시국가에는 세력을 과시했다. 당시, 연합체에 속했던 도시국가의 통치자나 귀족이 멕시코-테노

---

tlaxcalteca)을 멕시코와 동일 근원의 종족으로 간주하며 공동체 의식과 결속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오랜 전통의 칼풀리를 새로운 종족 개념으로 대체하는 데는 실패했다(이종득(2010), 『멕시코(mexica)의 기원과 관련된 고문서와 연대기에 나타난 역사 서술의 특징』, 스페인어문학, Vol. 54, pp. 282-287).

츠티틀란의 축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반란 행위로 간주되었다. 한 예로, 아우이소틀 왕 때에 텔롤로아판(Teloloapan)이 축제에 참석하지 않자 재정 복하고 공물을 과중하게 올리는 응징을 가했다(Durán 1995, 407).

축제의 절정은 인신공양 의식이었다. 티속이 우이실로포츠틀리 신전을 완공하고 80,400명의 포로를 인신공양했다.<sup>48)</sup> 대신전 완공식(1486)을 거행할 때도 아우이소틀 왕은 각 지역에서 생포한 포로 8,400명을 인신공양했다. 이 축제에는 멀리 미초아칸과 치아파스에서 사절이 왔었다(Durán 1995, 399-400). “태양의 돌”(Piedra del sol) 기공식 때에는 아샤야카틀 왕은 대서양 연안 도시국가의 왕과 귀족까지 초대했고, 수많은 포로를 인신공양하여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Durán 1995, 331-335). 인신공양이 종교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두란의 기록(1995, 228-229)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신공양 의식에 참여한 도시국가의 귀족들이 공포에 질려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으며, 멕시코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는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돌아갈 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푸짐하게 선물로 받았다. 이처럼 각종 축제를 통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은 주변부 도시국가와의 우의와 충성을 확인하고 결속력을 외부에 과시했다. 그리고 인신공양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연합체를 공포를 통해 유지하는 저비용의 고효율적인 통치 행위였다.

그러나 연합체 주변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삼각동맹국의 지배를 거부하거나 공물과 정치적인 간섭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다. 특히, 삼각동맹군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는 반란이 반드시 일어났다. 타라스코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 아샤야카틀 왕 시대에 각지에서 반란이 많았던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목테수마 쇼코요신이 틀라스칼라와 우에호싱코 지역의 도시국가와의 전쟁에서 대패했을 때도 얀쿠이틀란(Yancuitlan)의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Durán 1995, 498). 아우이소틀 왕 시대부터는 주변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49)</sup> 따라서 삼각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48) 인신공양된 종족과 숫자: 사포테카 16,000명, 틀라파네카 24,000명, 우에호싱카 16,000명, 시우코우아카 24,400명(Feliciano Velázquez(ed.) 1992a, 58-59).

연합체의 주변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다. 연합체에 속해 있는 도시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도 해야 했고,<sup>50)</sup> 연합체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경 수비도시도 세워야 했다. 중요한 전략 지역에도 수비도시를 세워 통치를 강화했지만 반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삼각동맹국의 중심부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대외 세력은 현재 푸에블라 주에 있었던 도시국가(Tlaxcala, Huexotzinco, Cholula, Atlixco, Tecoac)들이었다. 스페인 정복자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도시국가들에는 멕시코와 싸워 패배한 찰카와 오토미들이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테노츠티틀란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무엇보다도 연합체의 중심부나 주변부의 반란 세력과 결합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었다. 실제로, 틀라텔물코의 모키우익(Moquíhuix)이 아샤야카틀과 반목할 때에 틀라스칼라와 우에호싱코 등에 구원을 요청했었다. 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무역 봉쇄를 통해 고립시키고(Clavijero 1987, 132), “꽃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매달(한 달은 20일: 필자 주) 초하루마다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Durán 1995, 289). 아우이소틀 왕은 주변의 도시국가들에게 틀라스칼라, 출룰라, 아틀리스코 등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인신공양용 공물로 바치도록 하기도 했다(Durán 1995, 392-393).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삼각동맹국은 이 지역만큼은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쟁에서 대패했다. 결국, 이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스페인 정복자가 도착했을 때 동맹을 맺고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을 공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또한, 목테수마 쇼코요신과 반목했던 테스코코의 익스틀릴소치틀도 스페인 정복자와 합세하여 멕시코-테노츠티틀란을 멸망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49) 반란을 일으킨 종족: mazahua, zapoteca(Clavijero 1987, 121), 반란 도시: Ixquixochitlan, Amatlán, Tlacuilollan, Xaltepec, Tecuantepec(Clavijero 1987, 124).

50) 한 예로, 연합체에 속해 있던 테낭싱코(Tenantzinco)가 툴루카와 마틀라싱코(Matlatzinco)의 공격을 받아 테낭싱코를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는 툴루카와 마틀라싱코를 정복했다(Durán 1995, 322-328).

## V. 결론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은 네사우알코요틀과 연합하여 아스카포살코의 공격을 막아내고, 테파네카의 주요 도시국가를 진압한 이후에 트라코판을 끌어들이 삼각동맹(1431)을 결성했다. 삼각동맹은 당시 멕시코 분지 내의 주요 종족이었던 아콜우아와 테파네카, 그리고 쿨우아를 중심으로 분지를 동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재편한 전통적인 정치 체계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은 쿨우아칸을 통해 트라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종교·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 시도했다. 삼각동맹의 결성은 솔로틀 왕으로부터 시작한 치치메카 시대가 종결되고 멕시코 시대가 열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삼각동맹 초기에는 삼국 간의 정치적인 독립과 대외 정책의 공조가 비교적 동등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니 왕부터는 삼각동맹의 축이 급격히 멕시코-테노치티틀란으로 기울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메소아메리카에 도착한 1519년에는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테스코코와 트라코판의 상당수 예속 도시까지도 광범위하게 미쳤다. 그러나 테스코코와 트라코판의 정치적인 독립 지위는 유지되었다.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은 삼각동맹을 바탕으로 멕시코 분지와 주변의 패권을 확보하고, ‘아스테카 제국’이라 불리는 거대한 연합체를 단기간에 건설하는 놀라운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스코아틀 왕은 멕시코 분지 내의 패권을 확고히 다졌고, 목테수마 일루이카미니 왕은 대외 정복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아우이소틀 왕은 오아하카와 베라크루스 주에 새로운 정복지를 개척하고, 테우안테펙 지협을 잇는 거대한 국경선을 완성했다. 대외 정복 초기에는 삼각동맹국과 멕시코 분지의 예속 도시국가들이 삼각동맹국의 지휘 아래 참여했었다. 그러나 아우이소틀 왕 시기부터 삼각동맹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화되고 연합체 주변부 도시국가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확대되면서 대외 정복의 탄력이 급속히 붙었다. 정복 방식은 전쟁을 통한 직접 정복과

외교 활동을 통한 속국 확인 방식이 검용되었다.

건설된 연합체는 삼각동맹국과 각 예속 도시국가들로 조직된 중심부와, 정복지로 이루어진 주변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변부는 완전 예속된 정복지와, 공물을 바치거나 우의 확인과 같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삼각동맹국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고 대외 정책에 협조하는 정복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삼각동맹국이 정복한 정복지는 북쪽으로 실로테펙과 옥시티판을 잇는 선을 경계로 타라스코와 대치하고, 남쪽으로는 멕시코 만의 코아사코알코스과 태평양 연안의 테우안테펙을 잇는 국경선을 만들었다. 연합체 내부에는 정복을 하지 못한 트라스칼라와 요피싱코 지역도 있었지만, 연합체 외부에도 정복지(Soconusco)가 있었다. 『멘도시노 고문서』에 따르면, 연합체 주변부는 30개의 중심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중심 도시국가는 예속된 도시와 마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연합체를 오래전부터 ‘아스테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불러왔다. 게다가, 연합체의 주변부는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게만 예속된 정복지가 아니었다. 다른 삼각동맹국과 공조하여 정복한 지역이었으며, 정복지의 공물은 일정 비율에 따라 삼각동맹국에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삼각동맹국의 중심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에 있었지만 유럽이나 동양에 존재했던 중앙집권체제의 단일 제국은 아니었다. 멕시코-테노치티틀란 중심의 삼각동맹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메소아메리카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연합체였기 때문이다. 거대한 연합체를 유지하기 위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은 공물 징수원 이외에도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관리를 수시로 파견하고, 전략적인 지역에 다양한 수비도시를 건립했다. 또한, 각종 축제를 통해 예속 도시국가의 우의와 충성을 확인하고, 인신공양의 공포를 통해 연합체에서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구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멕시코-테노치티틀란 중심의 연합체는 태생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종족과 종교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이질적인 칼풀리로 구성된 각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하나의 연합체로 통합될 수는 없었다. 또한, 다양한 통치 방식을 사용했지만 근원적으로 공물 징수원을 통한 메소

아메리카적인 통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멕시코-테노치티틀란과 다른 삼각동맹국 간의 결속이 약화되거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언제든지 모래알처럼 와해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물이었다. 연합체를 유지하기 위해 멕시코-테노치티틀란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반란을 진압하고 외부 정복을 지속해야만 했다.

## ■ Abstract ■

La Triple Alianza, concertada en 1431 entre México-Tenochtitlán, Texcoco y Tlacopan, fue una forma política de reorganización de la Cuenca de México en tres regiones (este, oeste y sur), compuestas por los acolhuas, los tepanecas y los culhuas, respectivamente. Este tratado marcó un hito histórico no sólo porque significó el fin de la época chichimeca, inaugurada por Xolotl, sino también el comienzo de la nueva época mexicana.

A través de la Triple Alianza, México-Tenochtitlán aseguró su hegemonía política en la Cuenca de México y sus alrededores, y construyó en breve tiempo una enorme Federación de aliados, conocida como el Imperio Azteca. Esta Federación se dividió en dos partes (el centro y la periferia). Aquél estaba compuesto por los tres aliados y sus respectivos estados-ciudades avasallados en la Cuenca de México; ésta, por los estados-ciudades de las regiones conquistadas. Algunos de ellos, como ciudades de guarnición, estaban bajo el directo dominio de los tres aliados; otros les reconocían su primacía política a través del ofrecimiento de tributos o el mantenimiento de la amistad, apoyándola en sus políticas exteriores.

México-Tenochtitlán fue el eje de la Triple Alianza, y también de la Federación. Sin embargo, Texcoco y Tlacopan desempeñaron también un importante papel como miembros de esta alianza y mantuvieron su independencia política ante ella. Tanto que incluso recibían sus porciones del tributo de la periferia.

El Imperio Azteca no fue un imperio centralista como los de Europa, sino una enorme federación aliada. Su organización era tan inestable como una muralla de arena que podía desmoronarse con facilidad si la unión de los tres aliados se debilitaba o su fuerza militar no se mantenía. Porque numerosos estados-ciudades de diferentes “calpullis” no podían unificarse en una entidad bajo el sistema político de la tradición mesoamericana.

Key Words: Triple Alianza, Federación de aliados “Azteca”, Mexico-Tenochtitlán  
/ 삼각동맹, 아스테카 연합체, 멕시코-테노츠티틀란

논문투고일자: 2010. 06. 28

심사완료일자: 2010. 08. 01

게재확정일자: 2010. 08. 03

■ 참고문헌 ■

- Acuña, René(ed.)(1985a), *Relaciones geográficas del siglo XVI*, Vol. 2, México: UNAM.
- \_\_\_\_\_ (ed.)(1985b), *Relaciones geográficas del siglo XVI*, Vol. 5, México: UNAM.
- \_\_\_\_\_ (ed.)(1985c), *Relaciones geográficas del siglo XVI*, Vol. 7, México: UNAM.
- \_\_\_\_\_ (ed.)(1985d), *Relaciones geográficas del siglo XVI*, Vol. 9, México: UNAM.
- Alva Ixtlilxóchitl, Fernando de(1985a), *Obras históricas I*, México: UNAM.
- \_\_\_\_\_ (1985b), *Obras históricas II*, México: UNAM.
- Archivo General de Indias, Sevilla, *Justicia*.
-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 México, *Tierra*.
- Barlow, Robert H.(1949), *The Extent of the Empire of the Culhua Mex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_\_\_\_\_ (1990), *Los mexicas y la Triple Alianza*, México: INAH, UDLA.
- Bartra, Roger(1975), “Tributo y tenencia de la tierra en la sociedad azteca,” *Marxismo y sociedades antiguas: el modelo de producción asiático y el México prehispánico*, México: Grijalbo, pp. 125-154.
- Benavente Motolinía, Toribio de(1971), *Memoriales o libros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 y de los naturales de ella*, México: UNAM.
- Borah, Woodrow y Sherburne Cook(1963), *The Aboriginal Population of Central Mexico on the Eve of the Spanish Conquest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Calnek, Edward(1974), “Conjunto urbano y modelo residencial en Tenochtitlan,” en W. Borah(ed.), *Ensayos sobre desarrollo urbano de México*, México: Sepsetentas, pp. 11-65.
- Carrasco, Pedro(1996), *Estructura político-territorial del Imperio Tenochc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Fideicomiso Historia de las Américas, FCE.
- Carrasco, Pedro y Jesús Monjarás-Ruiz(1998), “La estructura interna de la Triple Alianza,” *Arqueología*, No. 32, julio-agosto, pp. 42-49.
- Castillo, Bernal Diaz del(1964), *Histori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México: Porrúa.
- Chávez Orozco, L.(ed.)(1947), *Códice Osuna*, México: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 Clavijero, Francisco Javier(1971), *Historia antigua de México*, México: Porrúa.  
\_\_\_\_\_(1987), *Historia antigua de México*, México: Porrúa.
- Códice Xolotl*(1996), México: UNAM; Estado de México: Instituto Mexiquense de Cultura, Legislatura del Estado de México.
- Cortés, Hernán(1973), *Cartas de relación*, México: Porrúa.
- Cauhtlehuanitzin, Chimalpain(1991), *Memorial breve acerca de la fundación de la ciudad de Culhuacan*, México: UNAM.
- Durán, Diego de(1995),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tierra firme I*, México: Cien de México.
- Feliciano Velázquez, Primo(ed.)(1992a), “Anales de Cuauhtitlán,” *Códice Chiamalpopoca*, México: UNAM, pp. 3-68.  
\_\_\_\_\_(ed.)(1992b), “Leyenda de los soles,” *Códice Chiamalpopoca*, México: UNAM, pp. 119-128.
- Gibson, Charles(1971), “Structure of the Aztec Empire,”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Archaeology of Northern Mesoameric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376-394.
- Luis Martínez, José(1972), *Nezahualcóyotl*, México: SEP.
- ‘Memorial de los pueblos de Tlacopan’, “Memorial de los pueblos”, *Zimmermann*, 1970, pp. 5-8; facsimil en láminas 6-8.
- Mohar Betancourt, Luz María(ed.)(1990a), “Matrícula de tributos,” *La escritura en el México antiguo 2*, México: Plaza y Valdés.  
\_\_\_\_\_(ed.)(1990b), “Códice Mendocino,” *La escritura en el México antiguo 2*, México: Plaza y Valdés.
- Motolinía, Toribio de Benavente(1971), *Memoriales o libros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 y de los naturales de ella*, México: UNAM.
- Obregón Rodríguez, Ma. Concepción(1995), “La zona del Altiplano central en el Posclásico: la etapa de la Triple Alianza,” *Historia antigua de Mexico III*, México: CNPCA, UNAM, pp. 265-306.
- Quiñones Keber, Eloise(ed.)(1995), *Codex Telleriano-Remensi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Relación de la genealogía y linaje,” *Relación de Texcoco y de la Nueva España, Pomar-Zurita*, 1941, México.
- Tena, Rafael(ed.)(2004), *Anales de Tlatelolco*, México: Cien de México.
- Torquemada Juan de(1975-1983), *Monarquía indiana*, Vol. 7, México: UNAM.
- Van Zantwijk, Rudolf(1990), “El concepto del Imperio Azteca en las fuentes

históricas indígenas,”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Vol. 20, México: UNAM, pp. 201-211.

Zorita, Alonso de(1941), “Breve y sumaria relación de los señores y maneras y diferencias que había de ellos en la Nueva España,” *Relaciones de Texcoco y de la Nueva España, Pomar-Zurita*, México: Chávez Hayhoe.

Zuazo, Alonso(1971), “Carta del Lic. Alonso Zuazo,” *CDHM*, México: Porrúa, pp. 538-567.